제자훈련을 통한 팀 목회 연구

DISCIPLESHIP TRAINING MINISTRY RESEARCH TEAM VIA

By

KIM, SANG SEOP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Nam Won, Korea

2013

This is to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제자훈련을 통한 팀 목회 연구

DISCIPLESHIP TRAINING MINISTRY RESEARCH TEAM VIA

presented by

Kim, Sang Seop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in

DOCTOR OF MINISTRY

____

Academic Dean's Signature

____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____

May 2013

ABSTRACT

DISCIPLESHIP TRAINING MINISTRY RESEARCH TEAM VIA

By

KIM, SANG SEOP

We have often heard of the crisis of Christianity or Church in Korea. This crisis of Christianity in Korea has many causes. We can find one of then in Church parenting. There were a lot of development wholly compared with the past. unfortunately in fact the reality of the Church parenting that an individual church have to achieve is different. While Today the Church is gigantic and splendid in terms of parenting its environmental sector has not changed enough compared to the church's growth. Religious workers and teachers, the subject of parenting, are not properly trained, too. This non-professionalism of religious workers and teachers is the root cause stopping the church's growth in Korea by lowering the quality of next generation to lead the church. Another problem of church parenting is in the conventional curriculum.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but in this situation people are mot trained enough about how to apply to world of God to themselves. It is serious that the pastors and teachers in charge of parenting are unaware of such a crisis.

Christianity in Korea should think over and study the reality of church parenting and its direction in the future. Through this the church diagnoses the problem systematically and needs to present a solution to the believers. As people's consciousness, culture and life are changing swiftly, church parenting should not be static any more. Therefore the church in korea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this parenting and needs to

complement it urgently. For the last one century, christianity in korea shows the explosive growth close to 25% of the population. 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church in korea are made by the grace of God. In view of this present situation, the Church have to meet the needs of our people and the times. Unprecedentedly in the world missionary history, for the last one century the church Red more than 10 million christians, built churches close to 50,000 and produced thousands of seminary students every year. Every country of the world is envious of this quantitative growth if the church and expects the church in korea to be capable of fulfilling a role of the world missionary work. The church also thanks God for the blessing of God.

However, in the 21st century christianity in korea cam not be proud of and content with only the seemingly splendid shape. Rather, in light of the healthy belief and the word of god we now need to check our reality and fault hidden behind the shape. We have to reflect the church in korea through the christ's eyes and listen to the voice of christ of the present church, since the church has a lot of problems behind its growth. Today in serious confusion of values, the church in korea needs to see if is fully equal to the mission and role of the church to save our people. The church has greatly contributed to our nation. The church broke down idols and superstitious by awakening our nation in the korean traditional religion such as shamanism, confucianism and Buddhism. It is obvious that the church has contributed to educational campaig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cultural trans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aspects include lots of examples such as individualism, collective egoism, denominational division, flooding of the religious cult, the scrambling of the seminary, bad pastor's mass production, arithmetic materialism,

shamanism of christianity, traditional faith, secularism, industrialization. And the church in korea not only kept silent in front of, injustice and inhuman structural evil in korean society, but also didn't give young people a sense of correct values and true faith. The church to be the most sacred and honest became embroiled in the muddy stream of materialism and secularism and is facing the crisis of missing. As a result of these, the church was not equal to the mission of light and salt and does not have influence on our society and does mot deal with correctly the original mission of the church for expanding the kingdom of God

ACKNOWLEDGEMENTS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삶을 돌아보니 제게 있어 학위과정의 길은 학문의 길보다는 어쩌면 인격수양의 과정에 더 가깝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비로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논문의 마지막 마무리를 글로 남기려 하니 옛일이 스쳐 지나가면서 베풀지는 못하고 받기만 한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찾아 뵙고 감사 드리지 못하는 점 용서를 구합니다.

그 동안 논문을 훌륭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을 떠올리며 존경하는 백창건 교수님, 주선애 박사님, 김재규 박사님, 이재용 박사님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와 함께함으로 학위를 무사히 마친 서승현 목사 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에게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베려 해준 열린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참으로 셀 수 조차 없는 긴 시간을 학업에 매달리느라 집을 비운 시간을 묵묵히 내조해 준 안내 은옥에게 이 작은 기쁨을 바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꿈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런 내 인생의 보배 찬미와 찬영이에게 앞날에 아버지라는 이름의 작은 등불이 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2013 년 4 월 4 일 남원에서
김상섭

목　차(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지역적 배경

남원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승용차로 약 3 시간 30 분정도 소요되고, 전라북도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약 40 분정도 소요되는 위치에 있다. 2009 기준으로 인구는 87,675 명이고 재정자립도는 9.9%정도 된다(2004 년도 15.5%).꾸준히 인구도 줄어들고 낙후되어가는 농촌이 공존하는 작은 도시지만 아름다운 명산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1] 또한 광한루라는 역사적인 공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2. 역사적 배경

1895 년 남원부가 남원군이 되고 1906 년에는 지사면 둔덕면 오지면 석현면이 임실군으로, 산서면 번암면이 장수군으로, 고달면이 구례군으로 각각 편입되었다. 1931 년에 이르러 남원면이 남원읍으로 승격되고 1981 년 7 월 1 일 남원읍에서 남원시로 승격되어 남원군(16 개 면)과 남원시(9 개 동)로 분리된 이후 1995 년 1 월 1 일 남원시와 남원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 남원시가 발족되었다. 같은 해 3 월 운봉면이 운봉읍으로 승격되었으며, 1998 년 동면을 인월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

[1]http://www.namwon.go.kr /main/content.action?cmsid=101010201000/02.23.2013

1998 년 쌍교동이 죽항동과 금동으로, 용정동이 향교동으로 각각 편입되어 현재 1 읍 15 면 7 동에 이르게 되었다.[2]

3. 목회적 배경

본 교회는 1998 년 11 월 29 일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약 40 평정도의 상가건물을 전세3천8백만원을 주고 장년 15명으로 개척을 시작했다. 40평에서 절반 15 평정도는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 평은 교회건물로 사용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조금씩 부흥되기 시작했고 특히 중고등부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약 2 년정도 되었을 때에는 장년 25 명 중고등부 15 명 정도와 아동부 10 명 정도로 성장했다. 2000 년도에 들어서서 교회는 작은 문제로 인해서 개척을 함께 시작했던 분들이 교회를 떠남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목회자와 몇 분의 성도들의 새로운 각오와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냈고 교회처소를 도통으로 옮기게 되었다. 교인들은 15명 정도 나이 드신 분만 남게 되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회자와 남은 교인들은 더 큰비전과 믿음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작은 부흥이 다시 시작되었다. 1 년 반 정도 도통동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건물주인의 계속적인 소음과 종탑문제로 인한 핍박에 의해서 다시 한번 큰 결단을 하게 되었다.

물질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큰 부흥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교회 땅을 사고 건물을 짓자는 목회자의 건의에 따라서 전 교인이 마음을 합하여 2002 년도에 현 예배처소에서 가까운 도통동 566 - 1 번에 땅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곳에 3 층짜리 작은

---

[2]https://www.namwon.go.kr/main/content.action?cmsid=101010201000/02.25.2013.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교회만 지어 놓으면 부흥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대했지만 교회의 부흥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른 부흥하는 교회들은 무엇 때문에 부흥하는가?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참고하고 대형교회들의 주보도 참조하고, 오직 부흥의 문제가 시급했다. 무엇보다도 빚이 3 억 정도 되었는데 한 달에 이자만 150-170 만원 정도가 청구되었다. 이제 부흥은 살기 위한 부흥이 되었고 목회자와 교회성도들은 교회 문을 닫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흥이 절실했다. 교회가 아파트단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주마다 1-2 명 정도는 등록을 하는데 정착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만 보고 교인 수만 채우려 했지 미래를 바라보는 양육의 투자가 부족했다. 많은 세미나를 다녀보고 목회자와 교회에 맞는 양육체계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이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조금씩 훈련된 성도들에 위해서 정착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장년 140 명 정도가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중고등부 20-25 명, 아동부 40 - 50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교회는 새가족, 성장반, 제자훈련, 사역훈련, 바나바사역, 기도훈련, 전도훈련(병원전도팀, 부침개전도팀), 크리스챤 재정학교, 결혼예배학교, 153 도고기도와 깃발기도의 영성 훈련을 겸하여 최근에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해피데이 전도시스템을 통해서 작은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 아동부의 부흥을 위하여 주말마다 음악학교(바이올린, 플롯, 드럼, 영어)와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구성원들을 소수의 농사일과 개인사업자들과 공무원, 직장인, 전문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별히 제자훈련을 통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다.

Ⅱ. 실천계획

1. 제자훈련의 실제

1)목회자의 결단

목회에 있어서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자각한 목회자는 많으나 실상 목회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이는 드물다. 그것은 이제까지 익숙해진 목회 패턴을 버리고 새롭고 생소한 방법인 제자훈련 사역을 쉽게 결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제자훈련방법을 목회전략으로 채택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대단한 부담이요 모험이기 때문에 이 일을 결단함에 있어서 큰 확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옥한흠 목사의 말대로 “목회의 갱신과 제자 훈련의 성패는 어떤 방법인가 보다는 어떤 지도자인가”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어(W. More)는 제자훈련에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원인을 주도권의 결여, 야심의 결여, 부주의, 비협조적인 정신, 게으름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지도자의 성공은 15%가 “기술적인 훈련”과 “능숙도”에 의하고 85%가 지도자의 헌신과 경험과 영적 은사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제자훈련의 성패가 지도자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요, 평신도를 향한 제자훈련 이전에 목회자가 먼저 제자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제자훈련에 앞서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한 목회철학을 재점검해야 하고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만들기 위해 비상한 결단을 가져야 한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것처럼 맡겨진 양무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이 일을 결단해야 한다.

2)평신도의 동기유발

제자훈련 사역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려면 목회자의 결단과 더불어 평신도들의 동기에 유발해야 한다. 오늘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은 놀라운 교회의 부흥 뒷전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옥한흠 목사는 그의 저서 「평신도를 깨운다」에서 이렇게 말한다.

>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잠을 자고 있다. 엄청난 정력을 가진 거인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교회나 열심히 헌신하는 약간의 평신도 그룹이 있다. 그들의 봉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는 그들을 통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내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탁월한 평신도의 대부분이 교회조직상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위 통상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모범적인 평신도마저 교역자의 옷자락을 받들어주는 소극적인 시녀 역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와 같은 평신도의 역할마저도 극히 적은 소수의 독점물이 되고 있고 나머지 신자들은 그들 현상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3]

이처럼 깊은 잠에 취해있는 평신도들을 깨워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자아상을 정립하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도록 동기를

---

[3]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지역교회를 위한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서울:두란노서원 1984), 22.

유발시켜야 하는 것이다. 1974 년 스위스 로잔느에서 열렸던 세계 전도국제대회에서 메디슨(Madison)이라는 평신도는 만장에 모인 교역자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했다.

> 평신도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달라는 것이다. 기도를 어떻게 하며,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며, 전도하는 방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러 교역자들의 지도와 도전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4]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도 들려오는 하소연이다. 더 이상 잠자는 평신도만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깨우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을 자책하면서 제자훈련 사역에 모든 평신도를 참여시켜야 한다. 교회 나름대로 제자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적어도 2 개월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제자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우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교회가 냉랭하며 기도가 식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불평과 나태에 빠져버린 분위기 속에서는 이런 영적인 훈련을 갑자기 시작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설교나 특별집회를 통해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다음으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자와 양육자가 되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해야 한다. 이 훈련의 필요성과 의미, 그리고 축복을 거듭 강조하여 모두가 훈련을 대망하도록 하고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동기를 설명하고 축복의 비전을 고취시켜야 한다. 그리고 상세한 안내문을 각 가정으로 발송하여 결단을 촉구하여야 한다.

---

[4]Ibid., 25.

2. 제자훈련을 위한 교회조직 및 행정

제자훈련 사역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교회전체 구조 속에서 조화있게 수행되어야 한다. 교회 안의 기존 조직을 무시하거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칼 윌슨(C. Wilson)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내가 오늘날 제자훈련이 교회의 가장 필요한 점이라고 느끼지만 한편 다른 성경의 목표들을 배제할 정도로 제자 양성만을 강조하지 않는 점이 중요하다. 동시에 그 목표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보게 됨에 따라 우리는 제자훈련의 목표를 점점 강조하게 될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5]

그러므로 제자훈련 사역이 교회의 전반적인 조직이나 행정과 잘 조화를 이루고 상호 협력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1)제자 훈련원 설치

제자훈련 사역을 총괄하는 제자훈련원을 설치하되 기존 교회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한다. 그러나 이 훈련원에서 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자기 소속기관에 가서 사역하게 됨으로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게 된다. 이 훈련원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는 산실로서 이 과정을 거친 자가 교회의 임원으로 등용되며 각 구역장, 교회학교 교사, 제자학교 교사, 각 기관 사역자가 될 수 있다. 훈련원 조직은 담임 목사가 원장이 되고 교육담당 목사가 부원장이 되며 전도로부터 시작하여 재생산의 일꾼에 이르기까지의 17 개월 코스의 교과과정을 본 장 “D.

---

[5]C. Wilson Edward Bobinson, *The New Brown Driver and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on of Old Testament*(Indiana: Book Pub 1981), 31.

제자훈련의 단계별 과정”에서 다루게 된다. 그리고 제자훈련생 모집은 8 개월마다 모집하게 된다.

2)교회 다른 조직과의 상호관계

제자훈련원과 교회 다른 부서와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역 교회학교 제자학교 기타 기관의 책임자들에 의해 제자훈련 후보생으로 추천 받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원에 들어와서 17 개월 코스의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친 후 자기가 소속한 기관의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봉사하며 재생산을 하게 된다.

3. 제자훈련의 목표설정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제자훈련의 구체적인 목표를 케리 쿠네(G. Kuhne)는 여섯 단계[6]로 말했으나 필자는 삼 단계로 요약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확신

제자훈련에 있어서 기초적인 단계는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고(엡 2:1, 벧전 1:18),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6]G. Kuhne,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서울: 요단출판사 1980), 185-187.
게리 쿠네는 제자훈련의 목표를 여섯 단계로 말했다. 1. 구원의 확신, 2. 진리 위에 굳게 섬, 3.그리스도와의 친교, 4. 그리스도를 닮음, 5. 자립하는 신앙, 6. 재생산하는 신앙.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후 5:17). 그 뿐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탄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요 5:24, 요일 5:13),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 받았다(빌 3:20, 눅 19:20, 빌 4:3). 그러나 신앙교육은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비록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쁨과 평안이 없고 능력과 열매가 없게 됨으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2)성장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듯이 성장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그의 의식구조도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해야 하고 영적인 지식을 따라 성장해야 한다(골 3:10, 히 5:13-14).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골 1:28)가 되는 것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엡 4:15)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푯대를 쫓아가는(빌 3:14) 자세로 살아야 한다.

3)재생산의 사역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점점 성장하여 자립의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전 4:1)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도만이 아니라 일반 평신도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일꾼의 사역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역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직분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고전 3:6, 9)라고 말하므로 자신이 어떤 부문에서 사역하든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임을 깨우쳐주고 있다. 장성한 신자가 복음을 전해 재생산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다.

4. 제자훈련의 내용

제자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흔히 제자훈련을 또 다른 방법의 성경공부이거나 평범한 교사양성, 구역장 훈련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은 성경연구와 생활훈련과 재생산을 위한 사역훈련의 세가지 요소를 내포해야 한다.

1)성경연구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시던 훈련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작업도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마 28:20). 그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며(요일 5:13), 영생을 얻게 하고(요 20:31), 새 생명을 나누는 영적 교제를 통해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요일 1:4).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완전한 인격과 온전한 삶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다(딤후 3:16-17). 바울 사도께서 말씀에 붙잡힌 상태에서(행 18:5) 그의 사역을 수행한 것처럼 제자훈련 사역에 임하는 지도자는 자신이 먼저 말씀에 붙잡혀야 하고 성경을 가장 중요한

훈련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 성경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부수적인 교재를 이용할 수 있다. 흔히 많이 쓰여 지고 있는 네비게이토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나 대학생 선교회의 10 단계 성서교재, 아가페 출판사의 어빙젠슨 성경연구 시리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2)경건생활 훈련

제자훈련은 성경연구를 통한 지식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제자답게 훈련하는데 더 큰 뜻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예수님 자신이 종종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과 교제 하시던 일을 본받아 하나님과 단 둘이 기도로 교제하며(눅 5:16), 매일 매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생활 훈련을 힘써야 한다.

둘째, 형제들과의 교제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된 이들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짐을 서로 지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일(행 2:42-47)을 통해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된다.

셋째, 증인으로서의 생활훈련이 필요하다. 제자는 매일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것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자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훈련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순종의 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그의 모든 생활에서 인정하고 실천하며 따라가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 “철은 식기 전에 주물하라”는 서양 격언처럼 잘못된 모습으로 굳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경건한 삶을 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3)재생산을 위한 사역훈련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이 성숙한 크리스챤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생산을 위한 일꾼이 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므로 재생산하고 또 그들을 온전한 크리스챤으로 양육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첫째, 전도하는 방법을 훈련 받아야 한다.
둘째, 결신과 중생으로 인도하는 법을 훈련 받아야 한다.
셋째, 전도의 결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법을 훈련 받아야 한다.
넷째, 제자로 세우는 법을 훈련 받아야 한다.
다섯째. 그룹 성경연구 리더로써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진리를 배워 삶에 적용시키고 경건한 생활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자가 되게 하며 구체적 사역훈련을 통해 재생산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내용이어야 한다.

Ⅲ. 연구 조사

1. 성서적 연구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훈련의 모습을 통하여 제자훈련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말하고자 한다. 제자훈련은 구약성경에서부터 있어 왔고, 신약성경에서도 그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신.구약 성서에 나타난 제자의 의미를 알아보고, 예수님의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선택 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훈련을 시켰는가? 아울러 제자훈련의 결과를 말하고자 한다.

1)구약성서에 나타난 제자의 의미

LXX 에 사용된 μαθητής는 그리스 세계에서 단순한 의미로 사용한 μαθητής의 의미는 아니다. 이때의 세계는 언어의 역사가 추가되지 않았다.[7] 그러므로 LXX 에는 μαθητής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μαθητής와 동일하게 사용하는תַּלְמִיד (탈미드)는 역대상 25 장 8 절에 מְבִך과 같이 단 한번 찾아보게 된다. תַּלְמִיד는 동사 לָמַד에서 온 명사인데 학자(scholar), 학생의 뜻이 있고 לָמַד는 연습하다(exercise in), 배우다(learn), 익숙하다(be accustomed to)등의 뜻이 있다.[8]

---

[7]Gerhard Ke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Eerdmans Pub: 1968), 415-426.

[8]Edward Bobinson, *The New Brown Driver and Briggs - A Hebrew and English Lexion of Old Testament*(Indiana: Book Pub 1981), 540-541.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לָמַד는 μ α Θ η τής로 28 번 구약에서 번역되었다. 그리고 μ α Θ η τής는 LXX 에 오직 렘 13:21; 20:11; 26:9 에 약하게 나타나 있다. 이렇게 구약에 배우는 자 즉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부족한 것은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인의 의식 때문이다.

아무튼 구약에 הַלְמִיד(μ α Θ η τής)가 없는 것과 LXX 에 μ α Θ η τής를 쓰는 것은 보통 통상 번역하는 לָמַד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왜 구약에 הַלְמִיד가없는 대신 לָמַד가 많이 쓰여졌을까? לָמַד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과 항상 관계해서 사용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배우는 것에 종속된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성취하여 주님으로 서 그들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택했다. 똑같은 요구가 왕 같은 개인에게 주어지면 그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온 백성과 더불어 책임을 갖는다.[9]

구약의 공동체가 신적 선택에 의해서 제한되고 그 바탕에서 특별히 לָמַד에 자신을 헌신하는 개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לָמַד에서 הַלְמִיד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는 הַלְמִיד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나중에 한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10] 따라서 구약에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없다. 구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종(מְאָדֵרז)[11]으로 그의 곁에

---

[9]신 17:19 참조, 특히 לָמַד와 관련된 것이 신명기에 많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적 구원의 약속과 그들의 선택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지 않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리게 될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했다, (신6:10-12; 8:17; 9:4-6; 11:2).

[10]렘31:34에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새 언약의 공동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1]출24:13, 민11:28;*παρεστηκώς* “종자” 출 33:11; 14:31; 민12:7; “수종자”(servant) 참조.

있었고 모세의 죽음 뒤에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의 제자나 상속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세의 계승자로 공적으로 지명된 것이다.[12]

또한 구약의 선지자도 제자가 없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종보다 더 그들을 시종을 드는 시종들(assistants) 견습생들이 있었다. 사무엘 시대나 엘리사 시대에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다.[13] 그러나 그들은 그 지도자와 어떤 인격적이 관계 때문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 직접 채움을 받고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머물러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선지자의 아들' בְּכֵי־ הַכְּאִים (υίοὶ τώv πρΦητώv)인데 여기서 בְּז의 사용은 그들이 בְּכֵיאִים에 속한 것을 단순히 제시하는 것뿐이다.[14] 엘리야의 시종(assistant)도 제자가 아니라 종(servant)이다. 그 후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도 엘리사의 כַּעַר이였다.[15] 엘리사는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직무에 결합되지 않았다.

바룩과 예레미아의 경우도 게하시가 엘리사를 섬긴 것처럼 그도 예레미야를 섬겼다.[16] 거기서 바룩이 예레미야 뒤를 따르거나 함께 했던 독립적인 사역의 암시가 없다. 종자는 선지자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은 선생이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과 제자들 속에 살아 있는 헬라 토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

[12]민 27:15-23 참조.

[13]삼상11:10; 19:20 "선지자의 무리"; 역대하 6:1 "선지자의 생도" 참조.

[14]삼상 10:10, 19:20 참조.

[15]왕하18:43, כַּעַר를 LXX, παιδάριον로 왕하 19:21 "그는 엘리야를 쫓으며 시종을 들었다." 왕하 4:12, 25, 38; 5:20; 6:17; 8:4 참조.

[16]렘32:12f; 왕하 4:27; 5:9 비교.

유대주의 랍비들이나 헬라 철학에 접촉된 유대주의자들을 통해 토착화된 הַלְמִיד의 경우와 다른 것이다.

이스라엘 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여기서 인간의 종교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아리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으로 의미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는 항시 대화를 통하여 말씀을 전했지 자신의 말로 독립적인 말씀은 하시지 않았다(출 32:7-14,렘 11:8).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사업 전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초하여 행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며 그들의 입에 말씀을 두셨다(출 4:12; 렘 1:6, 20:14; 사 40:6).

이와 같이 구약에는 선생과 제자의 관계나 구전의 원리(the principle of tradition)가 없다. 만일 위임된 말씀의 증인이 헌신을 한다면 이 헌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헌신된 것이다. 모세의 경우 그는 참으로 신적 증언의 큰 몫을 담당한 선지자였으나 하나님의 전 계시가 그에게 전부다 나타난 것은 아니다. 만일 하나님의 예언이 모세 없이 불가능했다면 그 예언은 모세와 비교될 만 한 선지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주어졌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은 계속되고 동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모세에게 호소하거나 듣기 위해 그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선생이요 스승이었다. 사람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생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계시를 그의 백성에게 알리는데 사용된 도구에 지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은 그들의 설교를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권위에 근거하여 전할 수 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누구를 향하여 자기를 따르라고 부를 만한 인격적 자격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17] 구약 구전과

[17]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지역교회를 위한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서울: 두란노서원 1984), 108.

학교에서 구성원으로서의 תַּלְמִיד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고 미슈나(구전율법)를 배울 뿐 선생을 섬기지 않고 오직 선생 주위에 모여 선생의 권위에 복종 함으로서 תַּלְמִיד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랍비의 전통과 학교에서의 제자(תַּלְמִיד)에 대한 견해의 기원이 구약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헬라사상의 영향으로 온 것이다. 심지어 구약 말고 처음 시작하던 학교나 구전의 원리 가운데서도 랍비주의에 보여진 것과 같은 제자의 개념을 그다지 찾아 볼 수 없고 더군다나 모든 것을 모세의 인격에 위탁하는 Mosaism 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러므로 후기 유대 제자에 대한 견해의 발전은 Hellenism 으로부터 올 수 있는 영향을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 후기 유대의 תַּלְמִיד는 헬라가 기원인 것이다. 필로는 μαθητής라는 용어를 보통 헬라어로서 도제(apprentice), 학생(pupil) 특히 신적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그도 역시 유대 교육의 전통의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다. 랍비가 사용한 תַּלְמִיד의 어의는 상술을 배우다, 어떤 사물에 관해 안내를 받다. 책에서 지식을 얻어낸다. 습관이 되살아난다는 뜻이 있다.

유대주의는 그리스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되었다. 제자회와 전승에 의하면 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다. 그래서 선생과 학생과의 일련의 줄이 파괴되지 않았고 그리스의 문화를 공격하면 유대주의 전통을 보존하고 가르치기도 하였고 스토아주의의 전통을 따라 오랜 권위를 내세우게 되었으며 그리스 교사들은 봉급을 받게 되었다. 이는 초등부 교사에게 한하여 봉급을 주었던 것이다.

결국 현재 사용하고 있는 תלמיד는 헬라 문화와 교육의 영향을 받아 유대주의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תלמיד가 후기 유대인에게 끼친 영향은 헬라의 랍비들이 사용한 제자는 독립적으로 사용했으나 תלמיד의 제자와는 그 기원을 같지 않았다. 아무튼 그

리스 문화에서 단순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 이상에 두고 사용했다. 이는 유대주의의 주요 관심사인 토라를 중심으로 하여 단계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토라의 הלמיד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았다. 이들은 항상 유대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각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찾아서 안내하고 돕는 것이다.

2)신약성서에 나타난 제자의 의미

예수 당시 사람들에게 제자 개념은 이질적이지 않고 귀에 익은 용어였다. 신약에 사용된 제자의 개념은 해를 거듭하면서 그 용어의 의미가 발전되어왔다. 구약성서의 הלמיד(탈미드)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학습하는 자(신 6:10-12등)였기에 제자는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데로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섬기는 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제자의 관계가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자신이 그들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G. Kittel은 제자란 단어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250회가 사용되었다고 했고[18], V. Gerber는 King James Version에 복음서에 234회 사도행전에 30회가 사용되어 모두 264회 사용되었다[19]고 했고, W. Moore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269회가 사용되었다[20]고 했는데, μαΘητής"(3101)를 Strong은 252회를, 필자는 국제 새 번역 복음서에 263회(마태 단수 3회 복수 75회; 마가 복수 58회; 누가 단수 3회 복수 44회; 요한 단수 18회 복수 62회)와 사도행전에 30회(단수 4회, 복수 26회)가 사용되어 모두 293회가 사용되었음을 찾았다.

---

[18]Gerhard Kittel,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I*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5), 480.

[19]Vergil Gerber, *Discipling through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Chicago: Moody Press 1980), 37.

[20]Waylon B. Moore, *Multiplying Discipling*(Springfield: NAV Press 1981), 21.

제자의 일반적인 개념은 선생에게 배우는 학생 혹은 도제(apprentice) 그리고 견습공을 의미한다(마 10:24, 눅 6:40). 그리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나 그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세의 제자(마 22:16, 막 2:18), 세례요한의 제자(눅 11;1, 요 1:35), 그리고 바울의 제자(행 9:25)들이 있다. 신약성서에 누군가를 따른다(to follow)라는 내용으로 80회가 사용되었고, 세례요한의 제자가 복음서 가운데 12회 언급되었으나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서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하자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그 외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 활동을 했다(마 11:2, 막 6:29).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제자라고 하지 않고 그의 제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제자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들이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이들이다. 복음서에 제자라는 단어가 230회 이상 나오는 데 그 중에 90%가 광의로 사용되었다(눅 6:13,17, 19:37; 요 4:1, 6:60-62, 1:35-50, 7:3, 8:30-31, 9:27-28, 11:54).

협의로서 제자는 12제자를 가리킨다. 이 단어는 24회 가량 언급되었는데 자기의 옛 생활을 버리고 예수를 이해하고 동정하여 그에게 힘이 되어주었고(눅 22:28), 선교사역을 돕다가(마 9:37, 10:1,5), 예수가 승천하신 후에도 주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던 자들이다(마 10:1, 12:1, 막 8:27, 요 11:7, 12:4, 16:17). 유일하게 마태는 예수의 12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10:1, 11:1, 20:17). 마가는 소규모의 집단(7:17, 10:10)을 생각하면서 은밀히 담화하는 제자(4:34, 9:28)들을 기술했다.

단수형으로 언급된 제자는 요한이 특정한 인물을 지칭할 때, 마태와 누가는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할 때 사용했으나 마가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예수는 그를 따르는데, 치러야 할 대가를 강조하기 위해 제자에 대한 재 정의를 내렸는데 주로 제자의 신분과 자질에 관하여 언급하셨다. 제자는 주님께서 당하셨던 핍박을

면할 수가 없었다(마10:24-25). 제자는 주님을 위해 가정과 친척과 소유물까지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눅14:26,33), 자기의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눅14:27).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적인 제자의 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마10:24). 그러나 제자는 그리스도보다 높지는 못하나 온전케 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눅6:40)고 했다.

예수를 첫 번째로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공생애를 투자하셨다. 그러면 제자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가 있다. 웹스터 사전은 제자를 일반적 의미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받는자, 또는 배우는 자’로서 정의하고 있다.[21] Gary Kuhne는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에서 ‘제자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성장하고 있으며 전도의 열매이며 그 열매를 보존하기 위하여 새신자 양육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22]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제자라는 개념 속에는 인격적 위탁, 증인, 종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23] 물론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제자의 개념 속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연구하려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개념이다.

---

[21]Virginaia S Thecher, *The New Webster Encyclopedic Dictionary*(Chicago: Consolidated Book Publishers 1967), 246.

[22]Gary W. Kuhne,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서울: 요단출판사 1978), 24.

[23]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서울:두란노 2009), 100.

3)예수님의 제자 선택

제 1 세기의 유대 민족은 작고 보잘것없었으며, 국가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었다.[24] 특히 당시의 전체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7 천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 6 천여명이나 되는 절대다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25]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백성들을 천시하며 외면하고 무거운 유전의 율법으로 짐을 지워주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마 3:7) 이라고 했고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막 7:6), "인간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막 7:13), "회칠한 무덤 같은 자"(마 23:27)들이라고 책망했다. 이처럼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부패했을 뿐 아니라 사두개인들의 신앙도 이들보다 낫지 못했다.[26] 그러므로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고통 받고 영적으로 굶주린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 몰려들었고 그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민망히 여기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곤을 무릅쓰고 돌보실 뿐 아니라 그들을 계속 돌 볼 새 지도자들을 양성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마 9:37).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눅 6:12) 12 명의 제자를 택해 세웠는데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다음과 같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 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 이러라"(막 3:13-15). 즉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

[24]G. Bornkamm, *나사렛예수*, 강한표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27.

[25]류형기 편저, *바리새인*-성서사전(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5), 33-334.

[26]이상근, *신약주해*-마가복음(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4), 51.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있어 배우고 본받으며 그의 증거자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4)예수님의 제자훈련

예수께서는 제자를 택하신 후 그들을 훈련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예수의 제자훈련에 있어서 독특한 점은 제자훈련의 초점을 예수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깨닫는데 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위해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알고 그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많은 교훈과 이적을 행하셨다. 즉 말씀교육(막 4:1-20, 26-32), 광풍진압(막 4:34-41),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막 5:21-43), 오병이어의 기적(막 6: 35-44), 귀신축출(막 1:24-27)등을 통하여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야 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3 년간의 공생애가 끝난 무렵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고 물으심으로 제자들의 예수께 대한 고백을 요청하셨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는 만족해하시고 그를 칭찬하셨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갖는 의미는 인간 이상의 존재 즉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예수의 메시야성에 대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의 위격 곧 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진리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27]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의 인격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신 후에야 그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시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예수의 제자 훈련 과정에 있어서 분수령과 같은 것이다.[28] 사실 예수는

[27]A. Bruce, *열두 제자 훈련*, 김영봉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4), 187-188.

제자들이 자신을 메시야로 깨닫게 한 후에 비로소 메시야로서의 구원사역 곧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신다"(막 8:32)고 했다. 이것은 오늘의 제자 훈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점이다. 즉 예수의 인격과 사역이해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깨달은 자만이 실제로 그의 사역 곧 수난의 길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29] 베드로의 신앙고백 후 예수의 제자훈련 내용은 수난과 부활을 깨우치며 제자도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제 1 차 수난예고(막 8:31-32) 후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셨고(막 8:34-38), 제2차 수난 예고(막 9:30-31) 후에는 섬기는 자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으며(막 9:33-50), 제3차 수난 예고(막 10:33-34) 후에는 섬기는 자 (종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막 10:35-45).

이상과 같이 예수께서는 "가장 큰 자" "으뜸의 자리"만 관심이 있고 스승의 수난 사역에 무지한 제자들에게 "자기희생의 제자도"와 "섬김의 제자도"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스승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도록 훈련하셨다. 그들이 십자가의 수난 앞에서 불신과 배신의 오점을 남겨 놓았으나 예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으셔서 "내양을 치라"(요 21:16)고 당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아직 미숙함과 불신의 찌끼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고 말씀하심으로 파송을 단행하셨다.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자기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을 분부하신 것이다(마 28:18-20).

---

[28]김득중, *복음서 신학*(서울: 컨콜디아사 1986), 134.

[29]원종국, *제자양성의 성서적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교공동학위과정 1987), 90.

5)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최후로 지상명령을 내리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 이 명령은 비단 12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도 내려진 지상명령이다. 이 지상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인류의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절대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의 지상명령이므로 이 일은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명령인 것이다. 이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제자를 삼는 것은 지상명령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다. 이 지상명령에는 네 가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첫째, 가라(πορευθεγτεs), 둘째, 제자를 삼으라(μαθητευσατε), 셋째, 세례를 주라 (βατιζοντεs), 넷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διδακοντεs)는 것으로서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는 것만이 명령형 동사(μαθητευσατε)이고 나머지는 그 명령형 동사를 꾸미는 말이다. 그러므로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명령을 무시할 수는 있으나 회피할 수는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명령을 교회의 대헌장으로 남겨 주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신자를 제자화 해야 하고 훈련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 제자를 훈련하는 본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그 방법까지도 제시해 주셨다. 그 방법은 첫째,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전도), 둘째, 세례를 주고 돌보는 것(양육), 셋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교육과

훈련)이며 그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제자)로 세우는 것이다(골 1:28-29). 지상의 명령을 내리신 분이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항상(모든 세대)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제자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의 근거가 된다. 제자훈련은 다른 누구의 창안이 아니라 성서에 근거를 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제자화 사역을 통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은 그분의 가장 큰 꿈이며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는 결코 중단할 수 없는 명령이다.

6)제자훈련의 결과

예수를 통해서 제자로 훈련을 받았고 또 최후의 명령으로 "만민을 제자로 삼으라"는 분부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는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다. 물론 사도행전에 제자훈련의 내용이 자세히 소개된 것은 없으나 모든 믿는 자들이 "제자"라고 불리었고(행 2:41), 그들이 제자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산 것을 볼 때(행 2:42-47, 8:4-6),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 받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사도들이 예수의 제자훈련을 본받아 제자 훈련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베드로와 바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베드로의 제자 훈련 사역을 명확하게 지적하기는 어려우나 요한 마가와의 관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베드로는 요한 마가를 "내 아들 마가"(벧전5:13)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요한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크게 영향을 받은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30] 이 요한 마가는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했었다(행 12:25). 그러나 제1차 전도여행 도

[30]이상근, *신약주해-요한복음*(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68), 16.

중 밤빌리아 버가에서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바울과 결별했다(행 13:13). 그 후 약 10년 만에 두 사람은 화해하고 마가는 바울과 함께 옥중에 있으면서 그를 섬겼다(골 4:10, 몬 1:24). 그리고 수년 후 바울의 제2차 투옥 때에는 바울을 떠나 소아시아 지방에 가있던 그를 바울은 "나의 유익한 자"라고 했고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도록 부탁했다.(딤후4:11) 실패자였던 마가를 이처럼 훌륭한 제자로 훈련시킨 자가 누구였을까? 이상근 목사는 그의 신약성서 주해에서 그것은 그의 영적 아버지요 스승인 베드로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31] 또한 초대 교부들도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였고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자였으며 다년간 그를 따라다녔고 베드로가 가르친 대로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증언한다.[32] 이렇게 볼 때 요한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제자로 훈련 받았음이 확실한 것이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행 9:19),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아 그의 복음을 전파한 예수의 제자다(갈 1:11-12). 그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대중적인 전도를 했다. 그러나 그는 대중전도에 그치지 않고 예수처럼 소수 집중의 원리를 따라 소수의 확실한 회심자를 만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다. 그리고 그들과 얼마 동안 동거하거나 전도사역에 참여시켜 공동생활을 하게 함으로 양육했다. 즉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행 16:1-3), 드로아에서는 누가를(행 16:10),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행 16:12-15),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행18:18), 옥중에서는 오네시모(몬 1:10)를 제자로 양육하였으며 그들을 파송하여 지도력을 훈련했다(행 19:22, 고전 4:17, 살전 3:2, 빌 2:25). 그의 독특한 제자훈련 사역은 디모데를 제자로 양

[31]Ibid., 17.

[32]Ibid., 14-15.

성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는 디모데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고 권했고 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1-2)고 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가르침의 과정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바울은 대중 전도자 일뿐 아니라 모범적인 제자 훈련 사역자였다. 그는 예수처럼 소수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하며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었고 직접 파송하여 지도력을 훈련했을 뿐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재생산의 사역이 계속 되도록 가르친 것이다.

2. 신학적 연구

본 장의 연구방법은 우선 성서를 통해 신학적 기초를 삼고 제자훈련의 목적과 제자훈련의 원리를 각각 찾아 본 다음 오늘의 교회에 제자훈련이 왜 필요하며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밝히려고 한다.

1)신학적 근거

오늘의 교회는 너무도 다양한 신학적 조류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김기홍 교수는 "한국교회 신학의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신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신학을 세가지 내용으로 분류했다.[33]

첫째로, 사두개인적인 전통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의 이성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는 입장이다. 그런데 주관적인 이성을 모든 지식의 근본적인 기준으로 삼는 사두개인적 전통이 가져온 결과는 먼저 상대주의다. 그들은 신학을 한 시대 한 종교의 산물로 보고 성경을 포함한 모든 교리를 인간의 종교적 체험을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 그런고로 기독교의 절대성이 사라지고 다른 종교들과 상대적인 입장에서 서게 될 뿐 아니라 구원은 어느 종교에나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인간화에 대한 잘못된 강조다. 즉 인간의 이성이나 본성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은총이나 계시는 값싼 종교적 감상이라고 보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인간을 위한 희생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오늘의 인간구원은 "사회 구조악"과 "인간성 상실"등의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죄 문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보고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인간 영혼이나 죄에 관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원사업을 위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없어지고 단지 사회화를 위한 도구로써 교회가 존재하게 된다. 결국 사두개인적 전통은 스스로 타락한 인간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데 오늘 한국의 진보적인 교회와 신학자들이 이런 신학적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한철하 박사는 "신학교육과 진보주의"라는 논문에서 신본주의가 성경의 근본정신임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신본주의 신앙에 도전하는 현대주의를 향하여 루터, 칼빈, 웨슬레의 신앙전통을 잇는 모든 신

[33]김기홍, *성경과 신학 3 권*(서울: 엠마오 1986), 24-41.

앙인들은 다 함께 힘을 합하여 신앙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34] 고 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눅 18:8)라고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시던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서적이며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지키는 일을 힘써야 한다.

둘째로, 바리새적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철저히 복종하나 복음을 경직화 시킨다.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에 충실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만 성경을 해석함으로 오히려 성경의 참뜻을 곡해 했듯이 보수주의자들의 근본 진리수호 운동이 점점 경직되어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러한 신학 전통은 결과적으로 폐쇄적이고 독선적이며 분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교회를 분열 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바리새적 경향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이 교회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제자들의 전통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신학에 활력을 주고 설교를 통해 기독교를 확장시켜 왔으며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원동력이 되어왔다. 제자들은 완전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겸손해진 신앙의 사람들이며 인간의 철학이나 과학으로 계시를 설명하려는 사두개인들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가치관으로 계시를 이해하려는 바리새인적 방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작정한 이들이다. 그들은 성령의 조명아래 성경을 이해하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는 말씀처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선교에 참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

[34]한철하, *성경과 신학 2권*(서울: 엠마오 1984), 9.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임했다. 즉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순환적 반복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확장시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고 확장시킨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한철하 박사는 "선교 2세기를 향한 한국교회 신학"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뚜렷하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생각이든지 뜻이든지 이론이든지 유형의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혹은 영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일이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보다 높이는 시두개파도 인간의 전통이나 가치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던 바리새파도 모두 외면하시고 다만 성령의 빛 아래 계시를 이해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탁하시고 그 방법으로 세계를 복음화 하려고 하시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35]

나이로비(Nairobi)에 있는 세계 복음화 연구소(Center for Study of World Evangelization)에서 최근 컴퓨터에 의하여 다음의 연구 자료들이 발표됐다.[36] 이 통계를 위하여 223개의 나라, 6,270개의 종족 언어 집단, 50개의 주요 종교, 9,000개 이상의 기독교 교파들이 철저하게 연구되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79년 한 해 동안에 유럽에서 181만 5천 1백 여명의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또는 타종교와 사이비 종파의 신도가 되었고, 북미에서도 95만

---

[35]한철하, *성경과 신학 4 권*(서울: 엠마오 1986), 22.

[36]David L Watson, *제자도*, 문종학 역(서울: 두란노서원 1987), 4.

여명의 기독교 신도가 감소됐다.

왓슨(David Watson)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37]

> 그것은 서구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절대적으로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서구 기독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 빈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설교를 입맛대로 맛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예수의 제자는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도의 참 의미를 배우기를 원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서구의 기독교는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도 점차 증가될 것이다.

제자도는 한마디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이다. 절망과 파괴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현 세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몰락해 가는 세상을 교회가 회복시킬 것을 원하고 계시며 자기의 모든 창조물을 자기의 교회가 치유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길은 우리가 제자들의 전통에 따라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하고 그 명령을 좇아 만민을 제자로 삼는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김기홍 교수는 “한국교회 신학의 전망”이라는 논문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38] 이제 2세기를 향한 한국 교회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오로지 이러한 제자들의 전통에 참여하는 것만이 교회와 개인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길이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갱신되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길은 개개인이 제자들의 전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

[37]Ibid., 5.

[38]김기홍, 48.

로 믿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 입장에 서는 것이며, 성령을 통해 능력을 공급받아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다.

2)제자훈련의 목적

제자훈련에 있어서 그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간혹 제자훈련을 평신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거나 일종의 전문인이나 기능인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아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성경공부가 제자훈련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제까지 교회는 지식전달에서 끝나는 교육 때문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았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 유능한 전도자를 만들 있으나 거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교육을 강조하신 적이 없다. 만일 제자훈련의 올바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리적인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신자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제자는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훈련의 주제이며 표준이고 목표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자기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며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면과 사역적인 면이 모두 포함된다. 예수의 제자는 그 인격이 예수를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작은 그리스도"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예수를 닮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고 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인격적 위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따름으로 그를 닮는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받아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탄생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제자훈련을 받아 자신도 영혼을 재생산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하기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했다(골 1:29). 여기서 완전한 자란 어른스럽게 자란, 성숙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신앙 장에서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성숙한 단계로 성장함을 말하고 있다.[39] 그리고 John Wesley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40] 고 했다.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데 있다.

예수의 제자는 예수의 증인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역의 한 몫을 담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일군(고전 4:1)이 되어야 한다. 예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자기 삶을 철저하게 진리의 증거자, 사랑의 종으로 헌신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은 평신도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어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 재생산을 하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복음 전파이

---

[39]John Calvin, *기독교 강요 제3권*, 김종흡 역(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101-104.

[40]F. A. Norwood, *Church Membership in the Methodist Tradition*(Nashville: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58), 14.

기 때문에 자신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군이 되었노라”(골 1:23)고 증거 했다.

예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세워야 한다.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 각자가 예수를 닮아 성숙한 신앙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군이 되고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기까지 만드는 것은 단순히 훌륭한 일군을 키운다는 의미보다 그들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를 세워서 역사하게 하는 목적에 대하여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11-12)고 함으로서, 제자훈련의 궁극적 목표가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둘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역에 봉사케 하는 일이며, 셋째,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있다고 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종적인 천국의 완성은 초대받은 자의 수가 다 차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것임으로 교회의 증거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교회가 제자훈련을 통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 증거 사역에 동참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성취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서가 말하는 제자훈련의 진정한 목적은 지식전달이나 전도인 양성이 아니라, 첫째, 믿는 자의 인격이 예수를 닮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둘째, 그가 예수의 증인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며, 셋째, 그리스도의 몸(교회)을 세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3)제자훈련의 원리

현대처럼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때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바야흐로 제자훈련 시대에 돌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 하나의 유행처럼 붐을 이루었을 때 부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자훈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우선 용어에 있어서 양육과 훈련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양육이란 말은 원래 사후 관리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사역의 열매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의미에서의 새 신자 육성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서 제자훈련이란 전도로 구원한 영혼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킨 후 그가 그리스도인 사역자로 그리고 영혼을 재생산하는 일군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뜻한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지상명령을 통해(마28:19-20)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제자 삼는 일과 제자훈련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일을 통해 가장 완전한 제자훈련 원리를 보여주셨다.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선택한 일이었다. 그의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파할 열두 사람을 선택하신 후 집중적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다.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야 말로 예수의 사역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활동이었다. 사복음서에는 선생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διδασκαλος가 48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중 42번은 보통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칭호로서 예수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41] 리차드슨(N. Richardson)은 King James역에 "주"란 말이 66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 54번은 선생 혹은 학교 교사란 의미를 가진 헬라

[41] L.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New York: The Macmillan Co 1944), 85.

어에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45번은 가르치는 자로 언급되었고 11번은 전도자로 언급되었으며 자주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마 4:23)라고 언급되었을 때와 같이 짝지어져 있다고 했다.[42]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원리를 복음서 안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 선택의 원리(눅 6:13) - 예수는 그의 사역을 소수의 사람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했다(요1:35-51). 그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돌보는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큰 무리에 대한 관심보다 제자들에 관한 관심이 더욱 컸다. 그의 시간과 정성은 언제나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가르치기에 알맞은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한 것은 그의 선생으로서의 지혜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예수가 제자훈련에서 사용한 소수 집중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업을 계획하실 때 전략이다. 하나님은 먼저 한 나라를 도구로 선택하고 그 나라 중에서 한 가문을 선택하셨으며 그 중에서 한 가정을 선택하셨다. 즉 이스라엘을 택하고 그 중에서 유다를 택했으며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을 선택하셨던 것이다.[43] 제자훈련을 실천함에 있어서 소수 선택 집중훈련 원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흔히 우리는 가능하면 한번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가르치려는 유혹을 받는다.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할 때 결국은 다 놓쳐 버리고 말게 된다. 그러므로 소수를 선택하여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많은 것을 얻는 첩경임을 예수에게서 배워야 한다.[44]

---

[42]J. M. Price, 20.

[43]R. Coleman, *The Master Plan for Evengelism*(Old Tappan: Fleming H, Revill Co 1976), 26.

[44]E. Schell, *The Training of the Twelve*(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1911), 26.

둘째 교제의 원리 (막 3:14) - 예수는 당시의 다른 선생들처럼 어떤 교과 과정을 이수시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훈련했다(막 3:14). 예수의 제자훈련은 그 자신이 학교였고 교과과정 자체였다.[45]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후 개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요 6:3), 같이 식사하면서(요 21:13) 그들을 훈련했다.[46] 이러한 제자훈련 방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제자에게 자기의 삶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폭넓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귀신들린 자를 고친 후에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눅 8:38-39).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헌신적으로 시간을 들여 함께 삶을 나누었던 것이다. 찬다빌라(P. Chandabila)는 이것을 성육신의 원리로 설명했다.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심 같이 훈련자는 자기 스스로 다리를 놓아 장애물을 건너서 피 훈련자의 수준에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상하고 도달하기 어려운 생각들이나 경험들이 아랫사람들의 수준과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져야 한다. 자신을 피 훈련자의 위치로 구체화하는 것은 훈련자의 책임이다. 성육신 없이는 훈련자와 피 훈련자의 접촉이 불가능하고 그 접촉이 없다면 제자 훈련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47]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의 수준을 낮추고 그 시간과 삶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을 훈련했다. 제자 훈련에 있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원리를 따라 자신을 낮추어 피 훈련자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야 하며 교과과정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는 헌신적 자세가 중요하다.

[45]R. Coleman, 39.

[46]A. Hadidian, *Successful Discipling*(Chicago: Moody Press 1979), 115.

[47]P. Chandabila, *예수님의 제자훈련*, 신재구 역(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6), 16.

셋째, 시범교육의 원리(요 13:4-17절) -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이요 그러기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 자신이 어떠하냐는 것이다. 한 번의 모범은 백 번의 훈계보다 나은 것이다. 맥킨니(H. Mckinney)는 "진리의 화신은 효과적인 애원을 하는 영적 진리이다. 그래서 모든 선생은 나의 가장 효과적인 공과 사 나 자신이라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48] 이것은 진리가 가르쳐 지기 보다 포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는 살아있는 진리의 화신이었다. 그는 "나는 --- 진리요" (요 14:6)라고 말했고 그가 말한 바와 같이 그대로였다. 골든(S. Gordon)은 "예수는 하시기 전에 그러하였고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 가르칠 수 있기보다 훨씬 더 그대로 사셨다." [49] 고 말했다.

넷째, 현장 실습의 원리(마 10:1-42) -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하시고 보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훈련하신 후 실제적인 과제를 주어 실습을 시켰다. 열두 제자와 칠십 인을 둘씩 짝을 지워 전도대로 내보냈고(눅 9:1-6, 10:1-20), 오천 명을 먹이라고 했으며(마 14:16-17),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은 종의 일을 요청했다(요 13:1-15).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사역 전체를 제자들에게 위임했다(마 28:19-20). 이러한 일들은 선생으로서의 예수의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레고리(J. Gregory)의 유명한 교육의 7대 법칙 중 하나는 "학습자의 자기 활동을 자극하고 지도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50] 제자훈련에 있어서 이론적인 교훈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과제를 주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응용케 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을 실질적인 지도자로

---

[48]A. Mckinney, *The Sunday School Teacher at His Best*(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15), 20.

[49]S. Gordon, *Quite Talks on Home Ideals*(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9), 114.

[50]J. Gregory, *The Seven Laws of Teaching*(Boston: The Pilgrim Press, 1886), 82.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의 요소인 것이다.

다섯째, 재생산의 원리(요 15:16, 마 28:18-20) - 예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재생산을 기대하셨다. 가루 서말 속에 든 작은 누룩이 가루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비유나, 겨자씨만큼 작은 천국 운동이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가르치셨다(마 13:31).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6)고 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통해 재생산을 분부하셨고(마 28:18-20), 또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고 말씀하심으로 제자훈련을 통한 재생산의 방법으로 세계를 정복하실 꿈을 보여 주셨다.

예수는 이상과 같은 원리로 제자들을 훈련시킴으로 그 제자의 수효가 금세기 어떤 선생보다도 월등히 많으며 비록 예수를 경원하는 나라들이라 하더라도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다.[51] 모어(W. More)는 "복음이 예수께서 부활한 후 33년 동안에 당시 알려진 세계에 모두 전파되었다"고 했다.[52] 그렇다면 제1세기의 교회와 사도들이 어떻게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소수의 무리로 그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명령한바 제자훈련에 충실했던 까닭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길은 예수께서 제자훈련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처럼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것이요 그 훈련의

---

[51]H. Hornl,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 박영호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2), 247.

[52]Waylon B. More, *제자 배가의 원리*, 네비게이토선교회 역(서울: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1982), 45.

원리는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첫째, 소수선택의 원리, 둘째, 교제의 원리, 셋째, 시범교육의 원리, 넷째, 현장 실습의 원리, 다섯째, 재생산의 원리인 것이다.

3. 사회정의적 연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이 정도의 기반을 쌓은 원인은 목숨을 건 선교사들의 복음전파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근대화의 물결을 타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낳게 되었으며, 교회 또한 이러한 사회문제들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현재의 우리 사회는 그러한 문제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그 깊이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한국의 사회 문제들의 원인과 구체적인 사회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존 롤즈와 마이클 월쩌, 그리고 신학자인 판넨부르그와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론에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인 대안들을 모색해 볼 것이고, 끝으로 제자훈련에 의한 사회정의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1)한국 사회의 문제

한국인으로서 우리들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사회인가?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가? 우리 사회는 풍요로운 사회인가?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인가? 안전한 사회인가? 살기 좋은 사회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다”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 예전에 비해 경제력이 신장되고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갈수록 세상이 험해지고 각박해진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1)한국 사회 문제의 원인

한국 근대의 윤리는 국가 도덕의 부재로 인해서 무규범[53]성과 부도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윤리의식은 인간성 상실,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허례허식, 공공윤리 의식의 결여, 사회정의의 부재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인간성 상실,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는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나머지는 한국 전통문화의 요소들이 근대화.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독특하게 변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54].

김동춘은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부도덕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역할과 법에 대하여 강조한다. “사회 현상으로서의 도덕은 결코 경제적, 정치적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근대 국가가 수립된 상황에서 도덕은 신을 대신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정치질서, 법과 법규범 즉 국가의 도덕으로부터 일차적으로 조건 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도덕 교과서는 다름 아니라 정치, 즉 국가의 행동이다”[55]

한국 사회에서 도덕의 혼란과 무규범성은 바로 근대화의 과정-즉 전통 사회에서의 인(仁), 의(義), 예(禮), 지(智)의 도덕적 규범이, 현대 사회에서 법을 통하여 사회 질서를 잡는 보편적인 법 규범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파생되었다고 본다.[56] 한국의 지배 체제 또한 국가보안법을 상징으로 근대적 법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국가의 억압기구인 경찰과 군대가 사회질서의 전면에 나서 지배집단의 이념과 도덕적 기

---

[53]김동춘, *근대의 그늘*(서울: 당대, 2000), 101.
법과 도덕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교육 혹은 선전되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지배의 도구로서 사용되거나 갈등하는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법과 공식 도덕의 이 같은 성격을 간파한 구성원들이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그러한 규범을 어기는 것을 말한다.

[54]Ibid., 97.

[55]Ibid., 99.

[56]Ibid., 103.

반이 취약한 한국 사회를 지배하지만, 국가가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안보 국가를 이념으로 군사화 된 질서는 지배 집단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지배계급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낳게 되는 것이다.[57] 지금까지 한국의 관료-정치가-대자본가 들은 국민들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 왔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로 도덕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그전 정권과 연루된 이들의 비리와 부정을 접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들 지배집단의 행태를 닮아가게 된다. 사회 전체가 무규범 상황에 이르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무규범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가도덕의 부재, 즉 지배집단의 도덕성 결여에서 출발한다.[58] 이러한 무규범적인 국가사회에서 국가의 우월성과 지배계급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바로 경제성장이다. 따라서 한국 근대 사회는 정치와 돈의 논리가 법과 도덕의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었고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한 안보의 논리는 국가와 시장을 매개하는 사회의 도덕적인 공간을 더욱 더 압박하게 된 것이다.

무도덕의 영역은 한국 사회에서 각각 무규범적인 국가주의와 이기적인 가족주의를 만들어내게 된다. 사회적인 합의 절차를 도출하여 내고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토론과 참여를 통하여 민의를 형성하여 국가 발전을 이룩하여 나아가야 할 국가 권력은 냉전 시대 하에서 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사상이나 이념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사분란하고 안정되어 보이지만 특징은 국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눈치를 보며 복종하면서 탈법의 경향을 띠는 소비나 향락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59] 국가가 무규범적이며 국가

[57]Ibid., 108.

[58]Ibid., 109-110.

[59]Ibid., 117.

의 일방적인 무 도덕성이 국민들을 탈법적으로 몰아세워 소위 일상적인 저항 현상을 야기시키며 스스로 법을 어겨서 사회에 저항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국민들 자체의 생존의 논리와 연결되어 가족이기주의를 초래하며 전통사회의 효(孝)의 윤리에 기초한 가족주의가 물질주의와 공리주의의 내용을 갖추어 현대적으로 변용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춘 교수는 위와 같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한국의 근대성에 나타나는 도덕의 위기는 개개인의 인격완성과 개인주의적이며 도덕주의 적인 동양식 예절교육을 통하여는 바로 잡을 수 없으며 국가의 도덕을 바로 잡는 일을 통하여 정치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귀화 러시아인인 박노자(블라디미르 티호노프) 교수가 진단한 한국사회는 한마디로 전 근대적이며 사대주의와 패거리 문화가 판치는 폭력이 충만한 사회이다. 박노자 교수는 패거리 문화를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 속에 깊이 스며있는 인종주의에 대하여 고발한다. 그는 개항이 바로 인종주의를 수용하는 계기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개항이 되면서 한국에서는 그전에 없었던 인종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조선의 지배층이 접촉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핵심이념이 바로 체계적이며 철저한 현대형 백인우월주의에 근거하여 있었기 때문이다.[60]

서구에 체계적이며 철저한 인종주의가 자리하게 된 시기는 18세기 중후반으로 산업혁명과 인도 식민화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같은 시기 인디언과 흑인 노예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관습화 되어있었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동양 멸시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동양 멸시론을 이론적으로 공고하게 만든 사상가들로 박노자 교수는 제임스 밀(James Mill), 헤겔(Hegel), 찰스 다윈(Charles Darwin),

---

[60]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275. 유경동, *한국 근대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3), 3에서 재인용.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그리고 슈트어트 밀(John Stuart Mill)을 꼽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구 문명 뒤에 숨어있는 인종적 편견과 사고가 개항 초기 지식인들에게 그대로 전하여 졌다는 것이 박노자 교수의 견해[61]이다. 박노자 교수가 고발한 한국 사회의 실상은 인종주의와 변종 된 지역(지방)주의, 그리고 심화된 패거리 주의이다. 자신이 속하여 있는 같은 패거리의 일부가 아니면 일그러진 증오와 멸시로 내치는 한국의 패거리 문화에 대하여, 박노자 교수는 '인간 존엄성 회복'이라는 소극적 대안을 내세우고 있다.

(2)한국 사회의 문제들

한국 사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관의 문제와, 정치,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소외된 계층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가치관의 문제 - 오늘날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해 가는 사회 현상 속에서 다양한 세대들이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회질서와 안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한 사회는 안정과 조화를 이루어 낼 수도 있고, 반대로 혼란과 긴장이 심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무질서와 무규범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박한 가치관이 만연하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62]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치관은 서구적 가치관의 유입, 과학과 기술의 발달, 합리적 사고구조의 확산, 정치와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업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

[61]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271-288.
개항 초 한국의 지식인들 중 대표적으로 유길준, 서광범, 박정양, 윤치호, 서재필 등을 예로 들면서 저들이 인종 차별론에 앞장 선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비판한다.

[62]이원규, *한국 사회문제와 교회공동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33.

다.

②정치 문제 - 우리나라는 정치는 오랜 군사정권 밑에서 밀실에서 운영되는 정치를 해왔다. 간판만 민주주의이고 사실은 독재체제가 오래 유지됨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이다. 각 정당간의 권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곳으로 세력이 집중되며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 특혜를 받으며 계속 되어 왔다. 정치와 경제가 유착됨으로 인해서 시장까지 잠식당하는 결과를 나았고, 지도자들이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 왔기에, 우리나라는 국가 도덕의 부재로 말미암아 무도덕과 무규범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시민들은 이들을 지탄하면서도 이들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혼란 속에 잠겨있었다. 자유시장경제마저도 정부의 지배아래 갇히게 됨으로 시민들은 일탈을 함으로써 정부에 반항을 하곤 했다.

김대중 정권은 "민주화"라는 명제아래 출범했지만, 곧 바로 IMF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 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별다른 큰 공헌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당들 간에 비리문제와 함께 지도자들의 도덕성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가 도덕"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다.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올바른 도덕을 확립하고 그것을 생활화 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더 이상 지역 이기주의나 몰지각한 판단을 배제하고 올바른 도덕성을 겸비하고 민주 사회로의 길을 앞당길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③경제 문제 - 오늘날 한국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전보다 매우 풍요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 정의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정.경이 유착됨으

로 인해서 많은 불의를 만들어내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값은 보통 노동자가 평생을 노력해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며, 사회가 전문화 되어갈수록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빈곤자는 수백만에 달한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발전의 와중에도 경제 성장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당한 채 삶에 힘겨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2000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12.8%가 가구당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이다. 이 비율은 인구로 환산하면 583만 명이다.[63] 20대 80의 사회에서 경제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점점 깊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④여성과 소외된 계층과 환경의 문제 -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종, 계급, 성,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똑같이 귀한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일 누가 인종이나 계급, 성이나 연령의 차이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성문제란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의 문제와 여성의 인간화를 저해하는 사회조직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64]

한국 사회에서 넓게는 여성 문제, 좁게는 여성 차별의 문제의 근원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유교적인 권위주의 가족윤리에 있다. 여성문제의 근원은 성차별인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성차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 개발 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2000)에 따르면 1998년 현재 한국은 남녀평등지수(GDI)가 세계 30위이며, 여성 권한 척도

---

[63]이원규, 269.
4 인 기준 가구당 월 소득 96 만원이 법적으로 규정한 빈곤 선이다.

[64]최선화, *여성문제와 사회복지*(서울: 양서원, 1999), 383.

(GEM)는 세계 63위에 머물고 있다.[65] 또한 여성만이 아니라 사회가 고령화 되어 갈수록 "노인 문제"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노인들이 많아지는데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노인들의 노후의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그리고 장애우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가야만 될 문제이다. 선천적 장애우도 많지만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우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과 제도적인 조치들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노동자나 어린 아이 등등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사람들 외에도 환경의 문제도 한국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다. 이원론적인 도식으로 하여 환경을 훼손하고 오염시킨 지난날들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고 이상기온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2)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론적인 대안들

"정의"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원하는 권리를 평등하게 충분히 보장해주는, 사회적인 혹은 국가적인 행동의 원리이다.[66] 오늘날 한국 사회 문제의 이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의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철학적으로 정의론의 대가인 존 롤즈와 마이클 월쩌와 기독교적 입장에선 판넨부르그,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

[65]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남녀 각각의 교육수준, 기대여명, 소득에서 남녀의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남녀간에 성취 수준이 어라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은 여성의 의회의석 점유율, 관리직, 전문적 비율, 소득에서 여성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정치, 경제 분야에서 여성이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하는가를 보여 주는 척도이다. 이원규, 128.

[66]신원하, *기독교 윤리와 사회정의*(서울: 한들출판사, 2000), 211.

의 정의론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John Rawls의 정의론 –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론

①John Rawls의 정의론 – 롤즈는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첫 번째는 최대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으로서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기본적 자유에는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가 포함되며, 사유재산을 가질 자유, 신체(인신)의 자유,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른바 종래의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워 온 자유들이 이런 식으로 보장되는 셈이다.

둘째로는 차등의 원칙이다.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로는 그 불평들이 최소 수혜자의 최대 기대 이익과 부합되어야 하고, 둘째로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하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된 것이라야 한다.[67] 즉 사회에서(천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즉 최소 수혜자 계층에서 유익한 결과가 오지 않는 한 부의 차등적 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차등이 용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모든 사회적 직책과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조건, 즉 가치 균등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상당히 평등지향적인 원칙으로서 '가장 불우한 계층의 처지를 살펴보라. 모든 사회 개혁은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68] 롤즈가 구성한 정의론은 중층적인 불평등시정조치들을 통하여 경쟁적 자유시

---

[67]John. Rawls,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역(서울: 서광사, 1991), 53.

[68]신원하, 44-53.

장의 폐해들을 극복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물질적 재화의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분배를 시도한 사회주의의 극복을 시도한다. 특히 사회의 최저 계층의 권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분배 문제에 접근하는 차별의 원리는 사회의 최저 계층에 대하여 최우선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고 있는 성경의 정의의 정신의 현대적 해석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69] 롤즈에게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롤즈의 정의론의 원천으로 제시한 인간관과 정의론이 괴리를 일으킨다는 것이다.[70]

②구체적인 대안 – John Rawls의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한국 사회 문제 속에서 정치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에 대안을 줄 수 있다. 우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최대한 그리고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에서 한국 정치에 대한 바른 지침을 줄 수 있다.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정부의 지시아래 시민을 우롱하는 사회 현실 속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모든 이들이 최대한 자유로운 삶을 살며 그러한 자유를 소외되는 이가 없이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Rawls의 정의론은 한국 상황에 좋은 안내서가 될 수 있다.

또한 차등의 원칙은 경제 문제에 이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빈부의 차가 날로 커지고 있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 현실 속에서 '모든 사회 개혁은 가난한 자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롤즈의 정의론과 '사회적 직책과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말은 한국 경제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은 이상은 높지만 그 실제적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없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Michael Walzer의 정의론 – 다원적 평등

---

[69]Ibid., 63.

[70]Ibid., 64.

①Michael Walzer의 정의론 – Walzer의 정의론의 특징은 자신의 말처럼 “자유주의에 대한 시정 혹은 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일관되게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반대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영웅인 “자율적 개인”이란 추상일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월쩌의 정의론은 “공동체 주의적”이다. Walzer는 다양한 가치를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공동체들이 분화되어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그리고 문화, 종교적 영역은 이러한 역사의 발전 속에서 분화되어 나온 공동체들이다. 이러한 공동체는 다문화적인 영역으로 존재하며 이는 관용과 다원주의적 가치분배를 요청하는 사회적 단위가 된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란 어떤 사회적 가치도 결코 다른 공동체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이며, 평등이란 분화된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한 분배적 정의의 산물인 것이다.

아울러 Walzer가 말하는 정의란 각양의 공동체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상대적”이며 각 공동체가 가진 분배의 정형에 대한 존중이다. 그러므로 월쩌의 분배적 정의론에 있어서 모든 공동체를 초월하는 보편적 원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분배적 정의에 대한 그 모든 해명이란 “국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Walzer의 정의론은 역사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면에서 “현실주의적”이다.[71]

②구체적인 대안 –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각종의 전제를 경험하였으며 아직도 그 전제의 폐해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다. 정치권력은 특혜라는 형태로 경제적 영역과 유착되어 있으며, 혈연중심의 강력한 연고주의는 경제적 영역, 정치의 영역, 심지어는 교회의 리더십을 직계혈통에게 승계하기까지 깊이 침투되어 있다. 아울러 금전이라는 가치로 대표되는 경제의 영역은 정치적 직함과 공직의 획득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정경유착과 특혜, 가족중심의,

[71]Ibid., 152-154.

권위주의적 지배는 분배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악의 근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Walzer의 정의론은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하게 위한 가능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 사회의 산업화와 정치화의 과정 속에서도 각 공동체적 영역의 분화와 발전이 분배정의를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고 사회 각 부문의 자생력을 재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Walzer의 정의론은 자생적이며 자율적인 영역, 특별히 공동체의 중요성을 거론 하므로 시민운동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도록 독려한다. 각종의 공동체의 성숙에 대한 윌쩌의 착안은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셋째, Walzer가 말한 바 있는 정치적 영역이 개입할 수 없는 부문과 돈으로 살수 없는 영역에 대한 설명은 분배의 구조가 무너지고 각 영역의 合從連橫(합종연횡)이 빈발하는 우리 사회에 각종 권력의 제한을 위한 좋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Walzer는 모든 사회적 가치가 이루는 권력이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경제적 가치는 권력으로 비화되지 않아야 하며, 가족 중심적 귀속주의는 경제적 영역에서 재벌 혹은 족벌제로 비화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영역의 경계선을 철저히 지켜지며, 감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한 우리 나리의 상황에서 각 사회적 가치의 담장은 더 높이 더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 집단간의 평형을 유지시켜주며,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72]

Walzer의 정의론은 우리 사회 각 영역의 다원성을 확보하며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러한 공동체의 성숙을 향한 좋은 이론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유착되고, 각 영역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

[72]Ibid., 154-155.

참 많은데 월쩌의 정의론은 시민사회로의 공동체성을 지향하고 각 영역간의 경계선을 철저히 지키며 감시해나가며 사회적 정의를 이룰 수 있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준다. 하지만 Walzer의 정의론의 약점은 "다양한 영역들의 질서를 누가 잡아주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Pannenberg의 정의론 - 사랑으로서의 정의

①Pannenberg의 정의론 - 판넨부르그는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본성과 종교적 본성을 연결시키면서, 인간이 여전히 개인적으로 자주적 존재이며,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며 정치적 존재임을 기독교 복음을 통해 증명하고자 하였다.[73]

Pannenberg는 인간을 종교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존재로 파악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그리고 정치적 존재로서 공동체를 본성적으로 지향한다. 공동체는 분배와 통치문제로 정치제도를 갖게 되며, 정의의 실현을 지향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몫을 공평하게 분배 받을 수 있는 정치제도는 정치제도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제도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근대 이후의 구가는 통치의 합법성의 근거를 제공했던 종교로부터 벗어나면서 통치의 합법성의 우기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Pannenberg는 통치의 합법성의 근거가 되는 종교를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주권재민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의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의식이, 인간의 존엄성의 사유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강화되도록, 그리고 민주적인 헌법국가로서 현대사회의 뿌리인 문화전통에 대한 기독교의 의미의 새로운 이해가 발생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정의의 온전한 실현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이세상의 정치제도를

[73]Ibid., 217.

하나님의 정의의지의 실현을 위한 잠정적 대리제도로서 이해하며, 동시에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항상 새로운 사회제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를 갖는다.

Pannenberg는 정의의 규범을 사랑으로 이해했다. 그는 사랑이 진정한 정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판넨부르그는 이 지구촌에서 사회정의가 비교적 잘 실현되고 있는 독일의 조직신학자로서 완전한 정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그의 정의이해의 기준으로 정했다. 그래서 그는 이 지구촌의 사회제도와 국가의 정의를 성서적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이해하였다. 그의 정의이해의 출발점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 불의가 만연한 구체적 사회가 아닌, 모든 국가형태를 능가하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하나님 나라이다. 그는 정의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정의의 실현의 장으로 설명함으로써, 현대의 사회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74]

②구체적인 대안 - 판넨부르그(Pannenberg)는 독일의 조직신학자이다. 그의 정의이해의 출발점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불의가 만연한 구체적인 사회가 아니라, 완전한 정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이다. 그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빛에서 "사랑"을 통한 정의실현은 우리 사회에 이론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곳 저곳에서 그리고 사회의 다층적인 모든 면에서 불의가 만연한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그리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로서 가장 소망하고 바라며 이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Pannenberg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현"의

---

[74]Ibid., 227-228.

면에서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재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적인 불의의 문제나, 경제적인 불의의 문제, 그리고 성차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기독교 내의 문제, 종교 간의 문제 등등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추구해야 할 이상향은 바로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이다. 그러나 Pannenberg는 이러한 나라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리제도로서의 정치제도를 개혁해 나가며 그 표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어둔다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4) Neinhold Niebuhr 의 정의론 - 기독교 현실주의

① Neinhold Niebuhr의 정의론 - 20세기 기독교 윤리학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였던, 미국의 라인홀드 니버(1892-1971) 교수의 전 생애를 통한 윤리학적 작업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이 혼란한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또 질곡들을 풀어 줄 수 있을까 하는 윤리학적 관심과 현실적인 동기로부터 시발되었다.[75] 기독교 윤리학에서 사랑은 최고의 규범이요 덕이다. 니버의 윤리학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니버는 예수의 희생적 사랑은 인간 삶의 궁극적 규범이요, 보다 나은 인간사회를 성취하기 위한 도덕적 원리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역사 안에서 실현이 되어졌지만, 결코 인간 역사의 장에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불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고 했다. 이것이 사랑의 역설적인 성격이다.[76]

Niebuhr는 역사 속에서 희생적인 사랑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의 불가

---

[75]Ibid., 157.

[76]Ibid., 162.
Niebuhr 는 사랑을 현 사회에서 실현하기 불가능한 이유를 인간의 죄악에서 찾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타락한 죄인이다.

능한 이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해에 근거하여 니버는 희생적 사랑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상호애[77] (Mutual Love)를 규범으로서 제안한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인류사회에 가장 심각한 독소로, 집단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Niebuhr는 강조한다. 사회는 갈등을 줄이고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손해를 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랑은 그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정의라는 것을 도구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78] Niebuhr는 정의의 원리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다. 니버는 점점 후기에 들어올수록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때로는 정의의 두 번째 원리인 평등까지도 변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데, 역사 안에서 사람들의 구조적인 처지와 필요를 고려할 때, 때로는 불평등이 필요하고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덕적 우선성을 갖는 것이다. 니버의 이러한 주장은 약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라는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9]

Niebuhr는 이기적인 욕심이 팽배해 있는 현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기를 원한다면, 이 일을 도덕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인 접근과 방법을, 즉 힘과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임을 주장한다.[80] 그는 이기심이 각축하는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를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조정력을 발휘하는 정부가 필요하고 또

---

[77]상호애는 현실적 상황에서 최고의 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도덕이 쌍방간에 만족과 보상을 주는 상호성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상호애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78]신원하, 164-165.

[79]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은 생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기회와 도움을 편파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신원하, 170−171.

[80]신원하, 173.

여러 권력 간의 힘의 균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까지도 이기적 욕심 때문에 그의 힘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이 힘들 간의 평형을 통해 이기심이 억제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원리를 "저항의 원리"라 하면서 사회에는 어떤 강력한 힘에 대응하는 세력이 균등히 존재해야 함을 강조한다.[81]

②구체적인 대안 – Niebuhr는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에 대하여 철저히 경험하고 연구한 신학자이다. 그는 개인의 이기심이나 집단의 이기심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줄여나가고 제어해 나갈 때 비로소 사회정의는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현실에 접합한 이론들을 제시해 주고자 노력한 신학자이다.

Niebuhr가 말한 "상호애"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상호애를 니버는 규범으로 제시한다. 인간의 이기심이 팽배해 있는 사회 속에 니버가 말한 이러한 "상호애"는 좋은 규범이 될 수 있다.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과 공동체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구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윤리적인 지침은 우리 사회에 좋은 지침이 된다.

Niebuhr는 상황에 따라 평등까지도 변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데, 역사 안에서 사람들의 구조적인 처지와 필요를 고려할 때, 때로는 불평등이 필요하고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도덕적 우선성을 갖는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Niebuhr의 약한 자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라는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찾을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 당해온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농촌, 노동자 등등의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함께 그들을 위한 제도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이

[81]Ibid., 177.

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Niebuhr는 Yoder와는 다르게 현 사회에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힘과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을 피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좋은 이론이긴 하나 잘못 사용될 경우 다시 한번의 십자군 전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현재 미국이 "정의"라는 이름 하에 세계의 여러 약소한 나라들을 제국주의화 시켜 나가며 자신들만이 "정의"를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힘과 강제력을 쓰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니버(Niebuhr)가 말한 집단적인 이기심이 절정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의"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 소유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는 "상호애"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어야 하며,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깃든 평등과 정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3)한국 상황에서의 교회의 역할

그 동안 기독교 신앙은 매우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내면적인 구원과 하나님나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은 사회적인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며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성숙한 신앙이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개 교회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그리고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여왔었다. 이제 기독교의 방향은 사회적인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며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이루어나가며 평화를 이룩하는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가치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가치갈등과 역기능적 가치관이 만연하면서 도덕성과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 교회는 가치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먼저 교회 안에 긴장과 분쟁을 야기하는 가치갈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며 나아가서 교회와 교인들은 양극화된 이념에 따라 대립하고 있는 사회 모든 영역의 집단, 혹은 개인들을 화해시켜 조화와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영적,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우선 교회 안에서부터 교인들 자신부터 갖도록 하고, 이를 점차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도덕성 회복과 공동체성 회복의 신앙운동, 사회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정의를 이룩하는 일을 교회에서 앞장서서 해나가야 한다.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회가 정치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해방적인 깊은 영성과 함께 정치력을 가진 교회로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며 시민단체와도 연대하여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시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또한 한스 큉이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사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까지 확대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와의 결탁을 떼고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될 수 있도록 각 영역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 학자들의 정의론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특히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라인홀드 니버가 말했던 것처럼 편파적인 평등이 한시적으로 필요할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모든 이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서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구조들을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한다.

가난한 자들의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정의의 우선순위에서 우리 자신들의 문제들로 받아들여야 하며,[82] 당연히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는 빈민층의 사회복지에 대하여도 교회의 지원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빈민지역에 놀이방 등을 마련해 주고, 야학의 운영과 의료봉사를 하는 일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빈곤층을 위한 국가적 배려를 촉구하는 운동도 필요할 것이다. 복지예산의 확대, 빈농에 대한 농가정책의 수립, 도시빈민지역의 환경개선, 빈민 근로자에 대한 작업조건 및 임금개선, 빈민층에 대한 고용정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범교회운동이 필요하다. 순수한 구제, 봉사를 위한 예산,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야기되는 불공정한 분배나 착취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막대한 물적, 인적, 시설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자원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운동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단순한 자선활동에 머물지 말고 예방적 치료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후원과 돌봄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의 약 1/5이 빈곤층이다. 빈곤문제는 한국 사회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세계로 향한 것이어야 한다.

네 번째로 여성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규범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유대교, 그리고 그 유대교에 뿌리를 둔 기독교 전통은 여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성차별적인

---

[82]김진용,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실천적 과제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상 2001년 3월호 (통권 제 507호), 217.

종교적 이해는 남성중심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한국 여성 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무엇보다 성 불평등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불평등한 가족법 개정과 취약한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여성권익보호 운동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직장 내 성차별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아선호사상을 버려야 하고, 여성의 성 상품화에는 적극 반대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어린 자녀들을 맡아 돌볼 수 있는 탁아소, 놀이방, 공부방 등이 많이 필요한데, 교회는 그 인적, 물적, 시설 자원을 활용하여 그러한 복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사회에서 특별히 약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자가정, 폭력 피해 여성, 무의탁 노인 여성, 여성 가구주, 미혼모, 시설 보호 여성 등에 대하여 교회는 따듯한 애정으로 돌봐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도 큰 문제인데, 성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성서적, 신학적 견해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재해석되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는 길이 모두 열려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통로가 여성에게도 열려야 하며,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책수행 과정에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83] 또한 노인문제, 환경문제, 장애우들의 문제 등에 대하여서도 교회는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써야 하며,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의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대하며, 교회들끼리 연대하고,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는 시민단체나 다른 종교들과도 연대하여서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어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하며, 이러한 정치력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계획성 있게 실

[83]이원규, *한국 사회문제와 교회공동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37-138.

천해 나아가야 한다. 날마다 변혁해 나가며 날마다 회개하며 복음의 선한 빛 아래에서 해방적인 영성을 가지고, 공동체성을 회복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그리고 세계 속에 정의와 평화를 실현시켜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4. 제자훈련의 양태비교

1)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1)목회철학

교회의 사도성: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는 교회의 본질을 사도성에 있다고 보았다. 교회는 사도의 증거와 사역 위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사도는 교회의 시작이며 영구한 기초석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도들의 증거와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상 그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리고 사도적 교회라면 그것은 성경에 일치하는 교회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도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이라는 말은 서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84]

이러한 사도성은 오늘날에도 계속되는가? 교회는 누구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로 구성되었기에 사도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 어는 한 사람이나 어느 특정한 그룹이 나설 수 없다. 성직자나 평신도 가릴 것 없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가 그 계승자로서 자격을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전 교회가 유일한 계승자이다. 그리고 이 사도성의 계승을 유효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다. 사도들을 감동시키시

[84]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서울: 두란노, 2009), 89-90.

고 그들을 증인 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성도로 하여금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옥한흠 목사는 Hans Kung의 말을 빌어 설명한다.[85]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사도성을 계승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사도들의 교훈을 계승하는 것이다. 즉 사도들의 증거를 듣고 존경하고 믿고 고백하며 따를 때 성취되는 것이다. 둘째는 전 교회가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다. 한스 큉은 이렇게 말한다. "사도성은 단순한 전도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순종하던 형태의 모든 봉사를 다 포함하고 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을 향한 사도적 사명을 완성하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선교를 한다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교회가 복종을 통해 계속적으로 인정하고 나타내는 데서 사도성은 계승된다." [86]

이러한 점에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사도성을 가지고 전 교회를 무장하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 할 수 없는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교회의 주체인 평신도는 이 소명에서 자유 할 수 없다. 즉 교회는 평신도가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일깨워 주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세상 끝날 까지 사도적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으며, 끝날 까지 계속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세상 안에서 사도들처럼 고백하고 증거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그 자체를 성경적으로 결정하는 본질적인 사명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사도성을 계승하여 사도적 고백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옥한흠 목사의 교회관이다.

---

[85]Ibid., 93.

[86]Hans Kung, *교회*, 정지련 역(서울: 한들출판사, 2007), 459-460.

(2)목회전략 - 제자도

옥한흠 목사는 제자도란 사도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에 일치하는 평신도 자아상을 재건하는 성경적인 기본전략이라고 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대답이 제자도라는 것이다. “제자도는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가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자체라고 할 수 있다.” [87] 이러한 점에서 사랑의 교회의 제자도는 교회의 본질인 사도성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길이다. 예수를 믿고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것이고 교회의 사도적 본질은 계승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적극적으로 성취하여 나가는 것이다. 사도적 본질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써 제자도는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인격적인 위탁자가 되는 것이다. 둘째는 제자의 궁극적 사명으로써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십자가를 자원하여 지는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다.

(3)목회방법 - 제자훈련

옥한흠 목사는 제자훈련에 대한 오해를 말하는데, 첫째 제자훈련은 성경공부다, 라는 오해이다. 성경공부는 제자훈련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제자훈련이 마치 성경공부인 것처럼 생각 할 때 교회는 더 이상 진보가 없을 것이다. 둘째는 제자훈련을 전도와 가르침에 유능한 평신도 기능인을 만들어 내는 코스처럼 생각하는 오해이다. 기능적인 사항들을 포함하지만 그 자체는 아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를 닮고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평신

[87]옥한흠, 122.

도의 뇌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제시한 표준에 따라 나의 신앙 인격이 성숙한 단계를 지향하고 있는가? 선교적인 책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을 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후자의 질문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틀 속에서만 복음화를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진정한 제자훈련은 평신도가 날마다 사회 속에서 성과 속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88]

결국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도록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소명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있다. 따라서 목회자가 교회의 본질인 사도성을 계승하여 제자도를 세우는 것에 전략적 목표를 두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성경적인 목회방법이다라고 강조한다.

(4)훈련방법

①예수님의 세 가지 훈련방법 -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모범 그리고 제자의 경험

②소그룹환경 - 개인이 실종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

③귀납법적인 성경공부 - 관찰, 해석, 반응(의미에 대한 느낌-내면화과정), 적용

④훈련과정 - 제훈련과정(28주), 사역자훈련과정(34주)

---

[88]Ibid., 189-190.

(5)결과[89]

①평신도에게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로서의 강한 소명감을 심어주어 자신을 교역자와 다름없는 소명자라고 고백(93%)한다. 70%가 양육하고 있다. 제자훈련정신이 공동체정신.

②건강하고 지속적인 교회성장 - 예배당 신축-입당: 40.2%, 입당 후 지금까지: 24.7% 성장, 97년 대학생 이상 등록 3,197명중 38.7%인 1,236명이 전도 된 첫 신앙자들.

③사역현장의 확장과 다변화- 훈련 받은 자들에 대한 사역배려(소그룹 배가사역).

④평신도 사역자들의 증가-보람과 긍지를 가진 평신도 사역자.

⑤지도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 - 훈련을 위한 지도자의 희생에 대한 열매.

2)온 누리교회의 제자훈련

(1)교회목표 - 온 누리교회는 1985년 예배공동체, 성령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 예수를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로 세우는 교회를 목표로 하여 창립되었다. 그리고 온 누리교회의 기본성격은 성경중심의 교회, 복음중심의 교회. 선교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2)양육의 과정 - 말씀묵상, 일대일 양육, 제자도, 전도훈련, 지도자 과정, 파견봉사, 선교 등 7단계의 양육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89]Ibid., 319-333.

(3)일대일 양육의 목표 -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로 등록한 신자들이 체계적인 양육을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제자양육의 방법은 네비게이토의 제자훈련방법과 정신을 차용하여 온누리 교회에 맞게 적용한 한 예이다.

(4)방법

①동반자반 - 등록교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양육 할 수 있도록 신앙의 근간을 확립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게 한다. 그리고 교재 중심으로 90분씩 4-6개월 정도 소요된다.

②지도자반 - 동반자 반을 이수한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하여 교역자 의해 4-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다.

(5)결과

현재 2000천명 이상의 지도자가 동반자를 양육하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이고 다른 교회에 적용되고 있다.[90] 이상에서 제자훈련 양태는 다르지만 원리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제자훈련 원리와 정신을 따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새로운 제자로써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평신도 지도자로 새로운 번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도적 신앙과 삶을 고백하는 진정한 제자를 양육하여 배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사역이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였던 훈련 방식이다. 개 교회에서 자신의 상황과 정도에 맞는 양태를 적용하여 예수님의 원리와 정신을 구현 할 수 있다면 질적 양적 성숙에 있어서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도날드

[90]이근미, 큰 교회 큰 목사이야기(서울: 월간조선사, 2005), 75.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은 이러한 제자훈련에 대하여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교회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평신도 지도자를 개발함으로써 이들을 통하여 기도회, 성경반, 지 교회 또는 가정교회의 책임을 맡겨 당황함 없이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장에 있어서 대단히 본질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주장한다.[91] 따라서 특히 도시교회에서 차분한 준비와 알맞은 형태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교회성장에 있어서 제자훈련이 갖는 의미

먼저 이중표 목사는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을 몇 가지로 정리[92]하고 있는데, 첫째는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장 신화를 바로잡았다. 둘째는 잠자는 평신도를 깨웠다. 셋째는 한국교회의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왔다. 넷째는 새로운 교회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평한다. 이러한 평가에서 비치는 것은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것은 제자훈련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는 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Donald A. McGavran이 말한 한국 내에서의 교회에 대한 수용성[93]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용성의 강화는 한국교회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하여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교회의 전

---

[91]Donald A. McGavran, *교회성장이해,* 전재옥.이요한.김종일 역(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472-473.

[92]이중표 외 공저, *영적부흥과 갱신의 길*(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9), 40-49.

[93]Donald A. McGavran, 367.

도와 사역에 대하여 잠재적 동의와 회심의 실재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제대로 되는 제자훈련은 한국교회에 대한 비 기도교인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된다.

둘째로,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의 '자연적 교회성장' 원리로써의 8가지는 필수 요소라고 검증을 통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8가지의 원리를 평균이상으로 갖추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리로써 "질적 특성1;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사역을 위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와 권한을 부여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94]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와 권한 부여의 사역을 가장 잘 도출 할 수 있는 것은 제자훈련과 재생산이다. 즉 영적 자생조직을 현실화는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이란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적절한 하고도 필수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 없이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지도자가 반드시 고려하여 설계하고 실천해야 할 필수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Christian A. Schwarz는 그의 책에서 6번째 원리인 "질적 특성6: 전인적 소그룹"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다. "만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말해보라 한다면 그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소그룹의 번식이라고 할 것이다."[95] 그는 소그룹의 계속적인 번식은 보편적인 교회성장의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소그룹이 전인적인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도"가 실제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제자도란 무엇인가? 제자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훈련과 적용을 통해서

---

[94]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정진우 역(도서출판: NCD, 2007), 22.

[95]Ibid., 32-33.

습득 되어지고 나눔을 통해서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제자훈련의 원리는 소그룹 중심의 전인적인 만남에 있다. 즉 소그룹 운동으로서의 제자훈련은 교회 안에서 전인적 소그룹운동을 주도하고 교회성장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Stephen A. Macchia는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자연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열 가지 건강한 교회의 비결가운데는 영적인 훈련, 공동체 안에서의 배움과 성장의 요소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사역을 명령하고 계시다.(마28:19) 건강한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건강한 제자이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삶을 본받고 인격적인 교제와 충성을 그리고 사랑을 이루어내는 존재인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데 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은 지도자의 몫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요인과 더불어 중요한 사항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이다. 이 사역은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사도적 신앙과 사역을 계승한 제자를 일구어 낸다면 그의 역할은 폭발적일 것이다. 여기에 교회사역의 희망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자의 소그룹에 대한 정확인 이해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흉내 내는 것으로는 제자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제자사역의 제자도를 먼저 실행하는 본과 희생 없이는 값진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여기에 리더십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령 안에서 부단히 훈련되고 주님의 방법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소그룹 제자훈련의 원리와 정신은 교회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Ⅳ. 연구과제 수행

1. 연구반 운영과 활동

1)연구반 구성

본 연구자의 훈련 반은 연구의 주 대상이 되는 열린 교회 교인으로 지도자적인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엄선해서 구성했다.

표 2. 연구반 명단

항목	이름	나이	직업	교회직분	신앙연륜	비고
연구반	강민자	52세	전도사	전도사	27년	심방전도사
	이수미	31세	간호사	집사	10년	중.고교사
	박은경	34세	사업	집사	9년	미화팀원
	강옥경	36세	주부	권사	15년	미화팀장
	안옥빈	52세	직장	권사	25년	전도부장

2)연구과제 수행계획

본 연구의 연구반의 운영은 주후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으로 한다. 1 월은 준비 단계로 함께 모여 연구반의 정의와 연구 내용, 적용 방법 등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모임을 갖도록 했다. 준비 단계를 거쳐 훈련 단계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연구반 운영에 들어간다. 2 월부터 10 월까지 약 9 개월간의 일정으로 훈련 단계에 해당된다. 이 기간에는 3회에 걸쳐 세미나를 실시한다.

모두 기존에 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로 구성 되어있으므로 기존의 사역정신을 새롭게 바꾸는 변화를 시도한다. 10 월까지의 훈련기간을 마치면 11 월부터 2013 년 1 월까지는 교회 내 사역을 맡겨봄으로써 실재 적용단계를 시작한다. 훈련기간의 세미나를 통해 얻은 내용을 어떻게 교회의 각 사역에 적용할 것인가를 실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적용과 그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 보다 나은 목표를 향해 지속적인 반복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마지막은 평가단계이다. 수개월 동안 진행되어 온 제자훈련을 통한 연구반의 변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장단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사역의 틀을 준비한다. 급작스런 변화는 오히려 반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준비된 변화의 틀을 교회 내 에서 직접 사역해 봄으로써 실험적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 3. 연구과제 수행계획

단계		연구 활동	연구 조사 내용	비고
준비	1월	연구반 설명회	# 연구반 모임 및 설명회	
훈련	2월	1차 세미나	# 제자훈련의 터 다지기	
	5월	2차 세미나	# 아무도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8월	3차 세미나	# 작은 예수가 되라	
적용	11월 -1월	교회사역에적용	# 새가족, 심방, 훈련원, 바나바 사역에 적용	
평가	2월	사역 평가	# 사역의 변화에 대한 평가 # 사역에 대한 설문 조사	

표 3. 에서 제시된 14 개월간의 목회 현장 연구를 통해 기존의 일반적인 봉사와 사역보다 훈련을 통한 사역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역과 봉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함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특정 교회가 아닌 일반 보편적 교회에서 적용이 가능한 내용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연구과제 수행 내용

1)연구반 설명회

연구반 설명회는 주후 2012 년 1 월 5 일 주일 오후 예배후 2:30 분에 2 층 세미나실에서 실시했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열린교회의 양육의 단계와 세미나의 교재와 연구반원이 되기 위한 자격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항존직의 후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청서를 세부적으로 기록해 올 것을 지시했다(남편, 구역장, 본인의 동의서 및 싸인).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여준다.

(1)양육 단계

표 4. 양육단계

제자훈련

사역훈련

세상

새가족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하면 새가족 양육을 5 주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제자훈련을 32주 양육하고, 마지막으로 사역훈련을 24주 양육 후 자신들의 달란트에 따라서 전적인 사역을 감당케 하는 양육단계를 말한다. 현재 열린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각 단계별 양육자격과 단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2)새가족-교재[96] 및 자격

*훈련내용 제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제2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3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제4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5과: 교회와 그 중요성

*지원자격- 본 교회등록자(누구나)

*지원기간- 5주과정(주 중 1시간)

*지원방법- ①접수, 신청기간:언제나 가능

②접수처: 강옥경집사

③지원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날인 후 접수

(주의: 지원서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접수 가능)

④문의: 훈련부(강옥경집사:632-3287, 019-665-3287)

(3)제자훈련-자격

*교회의 각 영역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①본 교회 등록자, 세례 받은 자

---

[96]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②새 가족 모임을 마친 자(5주)

③만30세-55세까지

④훈련 중 교회 봉사 요청에 기쁨으로 순종 할 수 있는 자

(봉사는 필수 사항임)

⑤배우자의 허락을 받은 자

⑥신체건강하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자

⑦제자훈련의 모든 내용을 불평 없이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된 자

⑧타 교회에서 새 가족모임,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훈련부로 문의바랍니다.

*훈련기간: ①32주과정

②훈련시간: 주 중 1회(2시간정도)

*지원방법: ①접수처: 강옥경집사, 김은영집사

②제자훈련 지원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날인 후 접수(주의: 지원서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접수 가능)

③문의: 훈련부(강옥경집사:632-3287, 김은영집사:635-0140)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4)사역훈련-자격

*사역훈련이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로 보아 말씀을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작은 목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원자격: ①본 교회 등록자, 세례 받은 자

②새 가족 모임을 마친 자(5주), 제자훈련을 마친 자(35주)

③만30세-55세까지

④훈련 중 교회 봉사 요청에 기쁨으로 순종 할 수 있는 자(봉사는 필수

사항임)

⑤배우자의 허락을 받은 자

⑥신체건강하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자

⑦사역훈련의 모든 내용을 불평 없이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된 자

⑧타 교회에서 새 가족모임,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훈련부로 문의바랍니다.

*훈련기간: ①24주과정 ②훈련시간: 주 중 1회(2시간정도)

*지원방법: ①접수처: 강옥경권사, 김은영권사

②사역훈련 지원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 후 서명날인 후 접수(주의:지원서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접수 가능)

③문의: 훈련부(강옥경권사:632-3287, 김은영권사:635-0140)

※지원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철저하게 새가족부터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마친 자에 한하여 항존직 후보를 세우며 이러한 훈련을 마친 자에 한해서 팀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5)열린교회 항존직 자격(요람[97] 제 5 장 14 조 2 항, 선거 및 임명)

#열린교회 항존직 후보자 요건

①양육상태: 열린교회 內에서 새가족, 제자훈련, 사역훈련 마친 자.

②신앙상태: 정기예배(낮,오후,삼일 밤,구역,새벽(한 주3번이상, 단 예외 있음)에 참석한 자. 참고사항: 가족신앙상태(부부, 자녀들).

③헌금상태: 십일조, 주정, 감사, 건축 등을 성실히 실행한자.

[97]김상섭, *2012년 열린교회요람*, 101.

④봉사상태: 맡겨진 일에 꾸준히 충성, 봉사한자.

⑤인간성: 인격 및 성도와의 교제상태가 양호한자.

⑥교회공헌도: 참고사항.

⑦기타

*타 교회에서 이명한 항존직(장로, 권사, 안수집사).

-본 교회 출석한자로 3년(36개월)이상 된 자.

-1-6번의 내용에 합한 자.

-취임하지 못한 자는 협동으로 사역 할 수 있다.

-필요시, 이명증서 및 임직증서 제출 할 수 있다.

*타 교회에서 이명한 일반성도(세례 후 만5년 경과한자(무흠)).

-본 교회 출석한자로 3년(36개월)이상 된 자.

-1-6번의 내용에 합 한자.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

(6)제자훈련반 신청서

열린교회에서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는 새가족, 제자훈련, 사역훈련반의 신청서를 철저히 작성해 한다. 특히 배우자와 구역장의 사인을 받아야 함으로 먼저 가정의 허락을 받고, 구역장의 응원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도 주위환경을 통해서 포기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였다.

2)1차 세미나

본 연구의 연구반은 교회 내에서 이미 사역 및 봉사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부분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고 신앙의 연륜으로 봉사를 하고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성도들 가운데 선정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 시에서 8 시 30 분까지 1시간30분씩 6회에 걸쳐서 교회에서 정기적 모임을 갖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표 5. 통해서 알 수 있다.[98]

표 5. 1차 세미나 내용

주제	과	소제목	레포트(책)	비고
1권 제자훈련의 터다지기	1	나의 신앙고백과 간증	효과적인 간증	
	2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3	경건의 시간	영성이 깊어지는 QT	
	4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말씀의 손 예화	
	5	무엇이 바른 기도인가?	무엇을 기도할까?	
	6	기도의 응답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철저히 시간을 엄수하고 예습과 리포트를 준비하고 새벽기도 또한 일주일에 2 회 이상 참석하기로 했다. 약속을 불 이행시 벌금을 1 회당 1 만원씩 3 회 이상 반복되면 탈락됨을 매 시간마다 주지시킴으로 모든 연구반원들이 최선을 다 하자고 다짐했다.

3)2차 세미나

2 차 세미나부터는 목요일 날 하던 시간을 연구반원들의 건의로 주일날 오후예배 후 2 시 30 분부터 약 1 시간 20 분에 걸쳐 실시했다. 세미나 내용은 전체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6 을 참고하면, 성경의

[98]옥한흠, *제자훈련 터다지기*(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59.

내용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문제를 양육했다.[99]

표 6. 2 차 세미나 내용

주제	과	소제목	레포트(책)	비고
2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1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	
	2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3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직 한 길	
	4	삼위일체 하나님	기독교교리의 요약	
	5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		
	6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7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증거	
	8	약속대로 오신 성령	성령세례와 충만	
	9	거듭난 사람	믿음의 항해	
	10	믿음이란 무엇인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11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구원이란 무엇인가?	
	12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성령에 속한 사람	
	13	그리스도인의 성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14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종말 종말	

특히 주일의 모든 예배와 사역이 끝난 다음의 시간에 세미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연구반원들도 있었다. 특히 한 주일에 한 권의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작성해 와서 발표하고 성경 암송하는 것에 힘들어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위로하고 독려함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2 차 세미나부터는 세미나 중에 한 번 정도는 연구반원들 가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다(단 1 식 3 찬).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보며 부담스러워 했으나 막상 가정에서 진행을 해 보니 새로운 느낌과 식사를 직접 준비해서 연구반원들을

[99]Ibid., 59.

대접하니 서로 더욱 친근해 지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

4) 3차 세미나

3차 세미나는 주후 2012년 8월 5일 주일 오후예배 후 연구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래 표 7를[100] 보면 알 수 있듯이 작은 예수가 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됨을 양육했고, 변덕스러운 봉사보다는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봉사는 끝까지 완수해야 됨을 훈련했다.

표 7. 3차 세미나 내용

주제	과	소제목	레포트(책)	비고
3권 작은 예수가 되라	1	순종의 생활	헌신	
	2	봉사의 의무	겸손	
	3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	빛으로 소금으로	
	4	말의 덕을 세우는 사람	은혜로운 말	
	5	영적 성장과 성숙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자	
	6	순결한 생활	유혹	
	7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8	신앙 인격의 연단	고통에는 뜻이 있다	
	9	그리스도의 주재관	파인애플 스토리	
	10	청지기 직		
	11	영적 전투	영적 전쟁	
	12	새 계명: 사랑하라	5가지 사랑의 언어	

[100]Ibid., 59.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다. 예수님을 믿고 얻는 복이 있으면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증거 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것이 크게는 전도이며 더 나아가서는 선교라고 강조했다. 계속적으로 새벽기도, 독서, 암송, 큐티 노트 작성, 예습 등의 리포트를 철저히 점검하며 진행했다.

5)사역으로의 적용

본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사역들을 다시 연구반원들에게 맡겨서 재 사역에 적용을 했다. 적용기간은 2012 년 11 월 1 일부터 2013 년 1 월까지 했다. 적용기간 동안 사역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오후예배 후 2:30 분에 만나서 계속적인 점검을 했다. 구체적인 적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새 가족 사역 적용

새 가족 사역에는 새로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있으면 새 가족 담당사역자가 주일 낮 예배 후에 전도한 성도와 새 가족을 인도해서 목회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된다. 사진촬영이 끝나면 전도자와 함께 3 층 새 가족실로 인도해서 목회자와 새 가족과 전도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 식사 할 때에는 새 가족 사역자가 등록서와 볼펜을 준한다. 목회자의 기도로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등록서 를 보면서 식사를 한다. 목회자를 등록서에 미비한 점을 기록한다. 새 가족 사역자는 부족한 음식과 커피 등을 옆에서 보조하는 일을 하게 했다. 식사가 끝나면 새 가족 사역자는 등록서와 새 가족을 바나바 사역자에게 인계한다. 그리고 새 가족 사역자가 하는 일에는 이슬비전도편지를 보내는 사역을 맡겨 보았다. 새 가족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평균 5 주 동안 이슬비전도편지를 보내게 했다.

표 8. 이슬비전도편지 이미지

(2)바나바 사역 적용

새 가족 사역자에게 새 가족을 인수인계 받은 후 바나바 사역자는 바나바를 목회자와 상의 후 정한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연락 후 5 주 동안 바나바의 역할을 점검하게 한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바나바 사역자는 바나바와 새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디서 몇 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서면보고 하게 했다. 보고서 내용은 표9 와 같다. 그리고 2층 계단에 바나바사역 현황판을 만들게 했고 현황판을 전 교인이 보게 했다.

표 9. 바나바사역 현황판

번호	새가족 등록일	새가족 이 름	바나바 이 름	바나바사역상황 (섬김)	차수	구역	기타
1	12.11.15.	류흥수	양학봉 장로	12/11.18(목) 가정방문하여 만남	1차	2구역	
2							
3							
4							

(3)심방사역 적용

심방전도사는 연구반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2 회씩 심방날짜와 조를 짜서 심방하도록 했다. 또한 심방보고를 서면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표 10 과 같다. 세미나를 통하여 양육했던 구원의 중요성과 한 영원에 대한 사랑을 적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시험장소가 되었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전도된 기존 성도들을 관리하고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때로는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10. 심방보고서

순서	성 명	대 원	일 시	장소	차량사용	선물내용	식사내용	내 용
1	박성숙집사	강민자 강옥경	12년11월1일 오후2시22분	길	무			한 달간 일 쉰다고 함
2	고제림집사	강민자 강옥경	12년11월1일 오후2시24분	집	무	사탕 1910원		몸살로 못 오심
3	김공순성도	강민자 안옥빈	12년11월3일 오후2시10분	가게	무	사탕 1910원		출타함
4	김귀순성도	강민자 안옥빈	12년11월3일 오후2시30분	가게	무	사탕 1910월		안부정도

(4)훈련원 사역 적용

훈련원 사역의 적용에 대해서 예 을 든다면, 새 가족이 등록하면 5 주 동안 새 가족 양육을 받게 되는데, 새 가족 양을 받기 위해서는 새 가족양육을 받을 성도를 모집해야 한다. 새 가족양육자를 모집 했으면 신청서를 받고 0.T 할 시간을 양육 받을 자 들과 정해야 한다. 0.T 시간이 정해지면 신청서와 0.T 시간을 목회자에게 사역자는 보고한다. 그리고 사역자는 0.T 장소와 새 가족양육자들을 모이게 한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세례 등의 모든 부분을 훈련원 사역자에게 맡겨서 하도록 했다. 모든 훈련생들의 모집과 신청서와 수료증 및 일반적인 모든 일을 담당하도록 했다.

(5)평가

본 연구의 평가는 주후 2013 년 1 월 28 일 프로젝트를 마친 후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 평가했음을 밝힌다. 평가의 대상은 연구반원들을 중심으로 국한했다.

①연구반원들의 세미나 전 사역

먼저 연구반원들의 세미나 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다. 개인별로 지금까지 특별한 훈련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교회내의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해왔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하도록 했다. 아래 내용은 연구반원 들의 세미나 전 신앙생활과 사역의 내용을 본인들이 직접 기록한 것이다.

a.강옥경권사: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부터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은 계속 했지만 확실한 믿음이나 사명감이 있어서가 아닌 사람을 보고 다녔다.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며 매달리기 보다는 세상으로 눈 돌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매 달리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만족함을 느끼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 속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며 때로는 후회도 했지만 바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을 뿐 실천하지는 못했다. 예배, 기도, 헌신 모든 것을 멀리하며 쉬운 길로만 가려 했었다.

b.안옥빈권사: 신앙생활을 시작한지가 결혼 후 성인이 다 된 후 가정을 갖고 자녀와 시부모와 함께 생활하기가 무척이나 고단하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우울하고 지쳐 있을 때 남편의 권유로 알게 된 경우다. 하지만 첫 설교부터 다 나에게 유익한 말씀처럼 가슴에 와 다 왔다. 그렇지만 딸과 쌍둥이 아들을 챙겨서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고 해서 딸아이와 둘이서 가고 아들들은 방안에 두고 다니다 시부모님께 혼나고 유교집안인 친정 부모님이 찾아와 듣기 거북한 말씀도 하시고 그저 물래 몰래 다니며 목사님도 심방 오실 땐 아무도 없을 때 오시며 난 그저 모르면서도 공적 예배는 빠지니 않고 참석하며 목사님 말씀에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하시라는

대로 그저 순종하며 나 나름대로 기도도하고 봉사도 많이 했다. 교회청소 식사 성가대 주일학교교사 여전도회장 회계 예결산 위원까지 재미도 있었고 칭찬도 받고 남편과 다툼도 많이 있었지만 내 고집 대로 아이들도 철야까지 같이 다녔다. 마음은 항상 남편에 불만이 가득했다. 왜 이리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까 가족구원도 못하고 원망만 했지 그저 근방 안 들어 준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다.

c.이수미집사: 훈련을 받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 맘대로 신앙생활 이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주일성수를 지키고 그 외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눈치 보느라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부족했다. 한마디로 내 삶에서 일 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가정이었다. 또한 훈련을 받기 전에는 주일성수를 지키지 않아도 두려운 마음이 없었으며 하나님은 내게 삶이 힘들고 지칠 때 가끔 찾아 위로 받는 정도의 의미였다. 교회 성도들과도 교제 하는 것이 귀찮았으며 새로운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싫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이미 방전된 상태로 교회를 찾았기에 교인들과는 눈인사 정도가 가장 편했다.

d.강민자전도사: 나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는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훈련은 받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철저하게 하셨던 어머니 덕분에 주일성수를 지키는 일과 예배의 중요성 등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고 느끼며 살았다. 성도들과의 교제 또한 중요시 여겼고 섬기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섬기려 노력하는 생활을 하였다.

e.박은경집사: 아이를 키우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이들이 잘 키울 수 있다는 말에 그냥 주일에 시간이 될 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행사, 모임에 참여 하지 않았고 하고 싶지 않았

습니다. 함께 교회 생활하는 교인들과도 친해지고 싶거나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라고 얘기 하지만 지식이 없었고 자신 있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전도해야 하는 생각도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하는 습관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들어 이런 신앙생활에 불편한지 모르고 다녔던 제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의미도 몰랐고 주실까? 하는 의심도 참 많이 했습니다. 주일에 시간이 날 때 습관적으로 다니던 신앙생활이 훈련 받기 전에는 너무도 당연히 생각되었고 남들보다는 났다고 생각 했습니다. 구원에 의미도 모르는 체 습관적으로 다니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함을 모르고 다녔던 저의 신앙생활 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구반원들은 세미나를 하기 전의 신앙생활과 사역의 형태를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만족이 없고 왜! 헌신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책에 물 흐르듯이 해왔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연구반원들은 교회 내에서 성도간의 인사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다. 또한 신앙생활을 30년이 넘게 해왔으면서도 한 번도 이런 훈련을 경험한 적이 없는 반원도 있었다. 어떤 반원은 헌금하는 것이 너무 부담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속마음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다.

표11. 연구반원들의 세미나 전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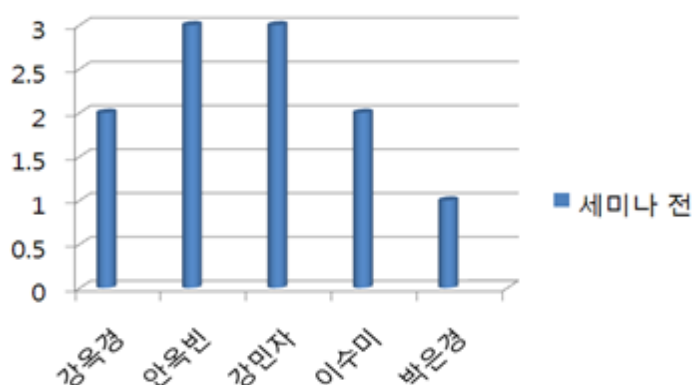



표11은 연구반원들의 개인적인 세미나 전의 신앙생활 및 사역에 대한 생각들을

그래프로 작성한 것이다. 최고 점수를 5점으로 하고 개인별로 보면 평균 1.5점에서 2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연구반원들의 세미나 후 사역

연구반원들의 세미나 전의 신앙생활 및 사역 상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후에 다시 세미나 후에 같은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아래 내용은 연구반원들의 세미나 후 신앙생활과 사역의 내용을 본인들이 직접 기록한 것이다.

a.강옥경권사: 처음 훈련을 받고자 했을 때는 쉽게만 생각하고 도전을 했었다. 32 주간의 훈련은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이 더 많았던 것 같다. 훈련 받기 전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훈련을 통해서 버려야 하는 것과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훈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아무런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훈련이 있었기에 조금은 변화 된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타고난 성품이나 인격까지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하겠지만 32 주간의 훈련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한다. 훈련 받는 동안만 변화되는 것이 아닌 훈련이 끝난 후가 더 중요함을 알기에 그렇다.

b.안옥빈권사: 그 전에도 성경공부는 교회에서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했었다. 나의 환경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 새 가족 양육을 끝내고 다시 훈련을 받으라는 제의를 받았다. 마음속으로는 그전 교회에서 했었는데 하면서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하고 같이 훈련을 받는 집사님들과 교육 받은 대로 실천하며 섬기며 하는 과정 속에서 저절로 감사함을 입술로 말하게 되며 그전에는 힘든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사연을 이야기하면 그저 들어주기 까지 밖에 못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눈에 힘드신 분들이 보일 때가 있으면 그 즉시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먼저 그 마음을 위로하는 모습으로

변했고 그런 분들을 위해 금식기도까지 하는 사람으로 변했다. 또 모든 것에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지금은 봉사도 기쁨으로 책임감으로 제일 많이 변한 건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일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가정 일이 되었다. 아들이 웃으면서 서운해 한다, 엄마 난 찬밥이야 하며, 훈련은 꼭 필요하다 왜냐고 묻는다면 혹독하다지만 훈련을 통해 행이 변화니까? 제자훈련을 꼭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 한다, 나도 변했으니까?

c.이수미집사: 훈련을 받은 후 나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신앙생활이다. 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 가고 특히 그 동안 막연하게만 느꼈던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훈련과정을 통해 내 자신을 깨고 부수는 작업을 하였다. 물론 훈련과정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다. 중요한 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일성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성도들을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사랑하려 노력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려 노력하고 그 노력함에 있어 자만하지 않고 겸손 하려고 노력하고 훈련을 받은 후 노력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d.강민자전도사: 열린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며 기존에 신앙생활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훈련 받고 변화된 다른 성도들을 보며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내 삶의 목표가 영혼사랑과 영혼 구원의 목표로 바뀌었으며 그전에는 알면서도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전도하려 노력하고 예비신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찾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주위 성도들의 변화된 신앙생활을 보며 훈련의 과정이 힘들더라고 그 열매는 귀할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e.박은경집사: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새벽기도를 습관들이면서 그냥 다니던 나에 신앙생활에 의미를 알게 되고 나에 변화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에 의미를 공부하면서 남편을 전도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신앙생활 하는 부모에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 인생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훈련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고 잘 못된 과거에 행동을 종이에 적어보면서 앞으로는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일을 생각하는 나에 마음에 자세와 십일조, 봉사에 의미와 교회를 생각하는 나에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고 내 삶에 하나님에 은혜에 감사 할 줄 아는 저로 달라졌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게 해 준 제자 훈련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면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의미를 알게 된 제자훈련에 감사합니다.

연구반원들의 세미나를 한 후의 신앙생활과 사역의 형태를 보면 많은 부분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세미나를 통하여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고 특히 그 동안 막연하게만 느꼈던 구원의 확신을 느끼고 훈련과정을 통해 자신을 깨고 부수는 작업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냥 다니던 신앙생활에 의미를 알게 되고, 가정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둘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12. 연구반원들의 세미나 후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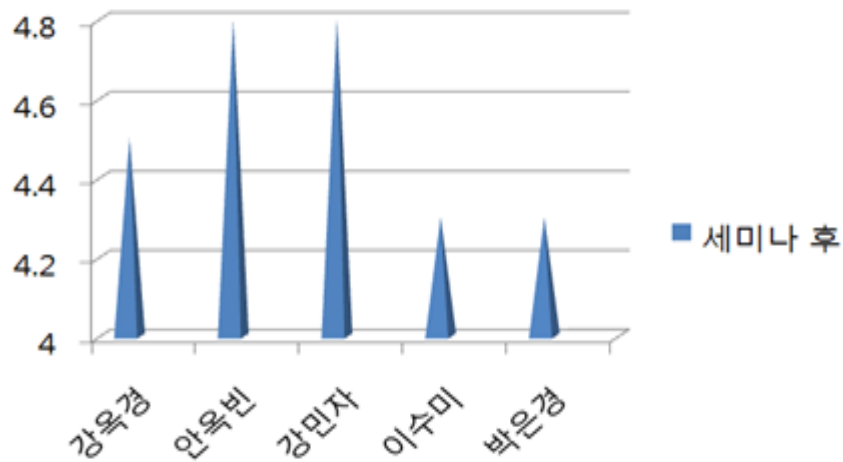



표12의 그래프는 연구반원들의 개인적인 세미나 후의 사역에 대한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세미나전의 평균 점수는 1.5에서 2점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세미나 후의 신앙생활 및 사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4.5정도로 많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③연구과제 수행 이후의 변화

A. 개인적인 변화

세미나 전의 신앙생활과 사역에 대한 개인별 내용을 조사하고 난 후 세미나 이후의 변화를 조사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었지 만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과 세미나를 통하여 강조했던 내용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연구반원들에게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했다. 표 9.는 구체적인 설문지 내용이다.

설문지

나이	성 별	신앙연륜	열린교회등록일
	남 / 여	년	년 월 일

설문조사에 앞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논문 “제자훈련을 통한 팀 목회 연구”에 인용되는 자료로만 활용이 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정 없이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 년 12 월 김상섭 목사.

표 13. 설문지

※해당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매우 아니다 2-아니다 3-잘 모르겠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제자훈련〕					
1.제자훈련이 필요하다.	1	2	3	4	5
2.제자훈련이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주었다.	1	2	3	4	5
3.제자훈련이 나의 가정생활에 변화를 주었다.	1	2	3	4	5
4.제자훈련이 나의 직장생활에 변화를 주었다.	1	2	3	4	5
5.제자훈련이 나의 삶의 목표를 바꾸어 놓았다.	1	2	3	4	5
〔교회봉사〕					
1.제자훈련 후 교회봉사가 재밌다.	1	2	3	4	5
2.제자훈련 후 봉사할 때 다른 사람과의 트러블이 줄어들었다.	1	2	3	4	5
3.제자훈련 후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한다.	1	2	3	4	5
〔예배관〕					
1.제자훈련 후 예배관이 변했다.	1	2	3	4	5
2.제자훈련 후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변했다.	1	2	3	4	5
3.제자훈련 후 설교 듣는 태도가 변했다.	1	2	3	4	5
4.제자훈련 후 설교의 이해도가 높아졌다.	1	2	3	4	5
〔기도〕					
1.제자훈련 후 기도가 하고 싶다.	1	2	3	4	5
2.제자훈련 후 새벽기도에 참여도가 높아졌다.	1	2	3	4	5
3.제자훈련 후 대중기도를 자신 있게 하게 되었다.	1	2	3	4	5
4.제자훈련 후 기도의 영역이 넓어졌다.	1	2	3	4	5
〔기타〕					
1.제자훈련 후 선교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	1	2	3	4	5
2.제자훈련 후 전도에 적극적이다.	1	2	3	4	5
3.제자훈련 후 헌금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	1	2	3	4	5
4.제자훈련 후 시간 관리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	1	2	3	4	5
5.제자훈련 후 리더십이 변했다.	1	2	3	4	5

특별히 설문지 내용은 훈련의 필요성, 세미나후의 교회봉사, 예배관, 기도생활, 기타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문 조사했다. 개인별로 세부적인 설문 조사한 내용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표 14. 설문조사(세부적 변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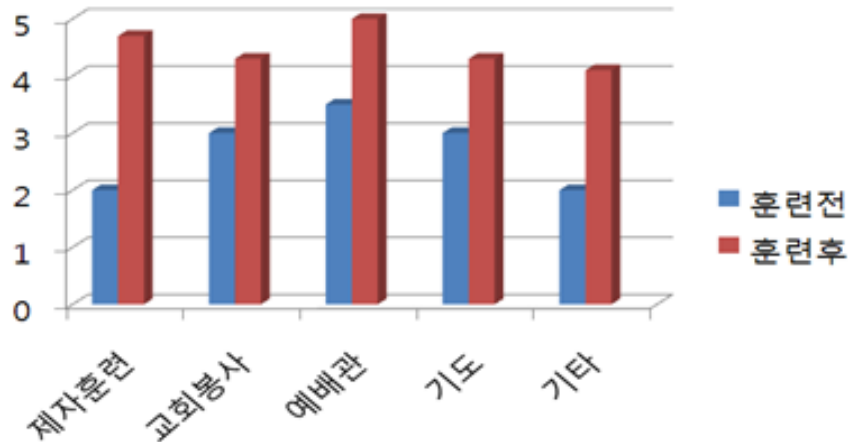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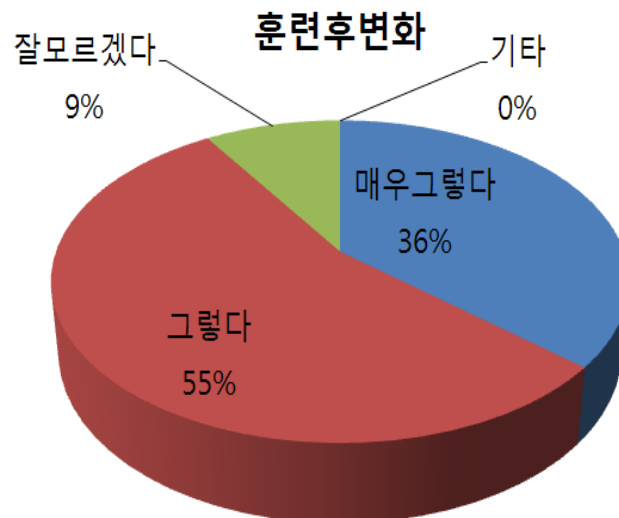
표 14 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제수행 이전의 신앙생활과 과제수행 이후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이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고점수 5 점에서 세미나 전에는 평균 2 점에서 세미나 이후에는 5 점에 가까운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특히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다소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교회 봉사에 대한 질문에는 교회봉사가 재미있다, 봉사를 할 때에 다른 사람과의 트러블이 줄어들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한다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배관 또한 많은 변화를 보여 주었고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참여도, 설교 듣는 태도, 설교의 이해도 까지도 변화를 가져왔다. 평균 3.3 정도에서 5 점에 가까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기도가 하고 싶다는 대답이 평균 2 점에서 3.4 점대로 상승했고 새벽기도참여도 또한 4 점대로 급상승 했다. 대표기도도 훈련 전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훈련 후에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대답이 많았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취약한 부분은 기도생활인 것을 조사됐다.

기타 부분에서는 선교와 전도와 헌금생활 시간 관리와 리더십에 대해 질문을 했다. 선교에 대한 점수는 2 점대에 머물러서 소폭 상승했고 전도 헌금 시간 관리는 3 점에서 4 점대로 평균 상승했다. 리더십은 3 점대에서 4.5 점대로 많은 상승효과를 보였다.

B. 전체적인 변화

아래의 표 15 는 설문조사의 전체적인 변화 내용을 보여준다. 과제수행 이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신앙생활과 교회봉사 또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 되었다. 36% 정도가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했고 55%는 그렇다는 대답을 했다. 매우 그렇다(36%)와 그렇다(55%)는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간주할 때에 91%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설문조사(전체적 변화내용)

C.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

본 연구를 통해 교회 성장에 미친 영향을 자료를 통해 증명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의 제한으로 불가능함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몇 가지 결과를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기존성도들이 연구자들을 시기와 질투의 시선도 있었지 만은 그 것은 극히 소수의 성도들이었다. 대부분의 기존 성도들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사역의 태도를 보고 매우 긍정적으로 사역에 참여했다. 물론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교육이 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의 마음에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전 보다 더해 졌다는 것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변화이다. 수평이동이 많은 남원지역의 특성상 많은 이들이 진부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요구한다. 이에 새로운 형태의 양육훈련이 이루어지는 대해 새로운 감흥과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의식의 단순화로 처음 교회를 찾은 이들에게도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양적 성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④연구과제 수행의 한계

지금까지 설문조사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전반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 특히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반원들이 꼭! 필요함을 요구했다. 그러나 훈련 후에도 변화를 크게 보이지 못한 직장생활에서의 변화와 삶의 목표에 대한 변화는 매우 작은 변화를 가져와 아쉬움을 남겼다.

아울러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먼저의 연구자들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성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였다. 나중에 교회에 등록한 연구자들이 훈련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자 기존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트러블이 생겼다. 기존성도들의 사역포기

와 연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과 목회자가 연구반원들과만 사역을 한다는 부정적인 말들이 부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사역을 연구자들에게 적용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Ⅴ.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

교회의 약 98%는 평신도이다. 그러나 나머지 2%에 의해 지나간 수세기 동안 교회는 움직여 왔다. 중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사역의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다. 그러나 20 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일부 교회들이 “잠자는 거인, 평신도들”을 깨우기 시작하였다.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평신도들의 지도자인 목회자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면 되겠는가? 특히 리더십, 섬김 그리고 설교에서도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간접적으로 목회와 교회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서는 목회자의 리더십, 섬김, 설교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반원들과 함께 책을 정해서 읽고 서로 토론함으로 책과 토의 내용을 중심으로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특히 연구반원들의 실제적인 발표와 임상실험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목회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연구반원들 또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리더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진행 할 것이다.

1. 리더십

최근 교계 내에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이 목회자 리더십의 부재로 꼽히고 있어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교단지인 한국성결신문사는 2 월 1 일부터 19 일 동안 교단 목회자 및 평신도를 대상으로 총 385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성장둔화 및 정체현상으로 29.7%를 나타내었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 및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로 18.9%를 차지해 목회자에 대한 리더십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101]

외국의 리더십이나 경영에 관한 책을 보면 빠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다. 바로 나폴레옹의 지도력에 대한 얘기다. 나폴레옹 장군은 부하들에게 자신의 지휘봉을 넣고 다니게 하며 지휘관의 역할을 훈련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래서 부하라고 해서 마냥 상관의 명령대로만 하지 말고 지휘관의 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였단다. 그만큼 부하를 전쟁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생각하여 평소에 지휘역량을 기르도록 한 나폴레옹 장군의 지혜는 요즘 같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리더십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진정 그 리더십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아해 질 때가 많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교회, 직장, 사회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리더십이란 주어진 조직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결속시켜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의미한다.

1)시행계획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리더가 필요하다. 특히 교회는 더 더욱 리더가 필요하다. 그러서 어떻게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개발을 위하여 먼저는 독서할 책을 두 권을 정해주고 일주일에 한 권씩 2주에 걸쳐서 읽어오도록 할 것이다. 한 주간의 독서가 끝나면 독후감을 A4 한 장정도 요약하고, 느낀 점과 적용과 결단을 꼭 써 넣도록 했다. 그리고 일주 후에 주일 오후예배 후 2층 세미나실에서 만나서 리포트를 점검한 후 책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토론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를 중심으로 리더십 개발을 위하여 30분씩 1주일에 두 명씩, 목회자와 연구

[101]http//blog.daum.net/edu_designer/8035024/02.15.2012.

반원들을 중심으로 구역예배를 인도해 보도록 할 것이다.

2)독서계획

표16. 독서계획(리더십)

도서명	내용소개	일정	레포트
마음으로 리드하라 (저자: 류지성)	『마음으로 리드하라』는 부하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출발해 리더 스스로의 마음을 재확인하며 나아가 조직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경영심리를 다루었다. 이 책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조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은 다양한 심리적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리더십에 대해 고민한다. 이를 통해 리더십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해준다.	2012년2월 6일-12일	독후감 느낀점 결단 적용 A4 2장
서울대 리더십 강의 (저자: 김광웅)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서울대 리더십 강의" 이 책은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리더가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리더가 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서울대학교에서 20여 년간 리더십에 대해 강의해 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을 비우고, 의심하며 여유롭고 천천히 사랑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어 치부와 억압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봉사하기 위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길러준다.	2012년2월 20일-26일	독후감 느낀점 결단 적용 A4 2장

3)시행결과

두 권의 책을 읽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 후, 30분 정도의 구역예배 기본 폼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해 보았다. 그리고 토론을 해본 결과 교회 성장은 리더십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리더

십이 아니라 교회성장을 효과적으로 이루는 리더십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른바 교회 성장형 리더십(church leadership)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시행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이렇게 해 볼 것이다. 단순이 말만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

2. 섬김

섬김이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수평적 관계의 예배입니다. 만찬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직적 예배의 연장선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이 섬김의 가치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섬깁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높으시고 크신 분이지만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참된 섬김은 다른 사람 밑에서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되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앉아서 피리를 불 때 춤을 추지 않고' 아이들이 곡을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처럼 되지 않은 것이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다비는 형제들의 진리를 알게 되자 하인들과 함께 자기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되어 섬긴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람처럼 되셨고, 죄인을 섬기기 위해 죄인의 친구가 되셨으며 죽음 앞에선 인류를 섬기기 위해 십자가

에서 죽으셨습니다. 섬기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보다 못났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사랑함으로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1)시행계획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섬기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서 어떻게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개발을 위하여 먼저는 독서할 책을 두 권을 정해주고 일주일에 한 권씩 2주에 걸쳐서 읽어오도록 할 것이다. 한 주간의 독서가 끝나면 독후감을 A4한장정도 요약하고, 느낀 점과 적용과 결단을 꼭 써 넣도록 했다. 그리고 일주 후에 주일 오후예배 후 2층 세미나실에서 만나서 리포트를 점검한 후 책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토론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친히 씻어주신 것처럼 남편이나 아내에게 세족식을 행하게 하고 느낌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2)독서계획

표 17. 독서계획(섬김)

도서명	내용소개	일정	레포트
섬김 저자:빌하이벨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의『섬김』. 평신도가 깨어나고 교회가 살아는 비결을 담고 있다. 말씀과 섬김으로 변화를 겪어 열정과 재능을 바쳐 헌신한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통해 평신도 사역의 위대한 힘을 느끼게 해준다. 실제 인물이 전해주는 생생한 체험으로 우리의 영성에 자극과 도전을 주며, 교회가 해 줄 일을 바라지 않고, 교회를 위해 할 일을 찾기 위해 움직이도록 이끌고 있다.	2012년3월 5일-11일	독후감 느낀점 결단 적용 A4 2장
행복한 교회 저자:김병태	교인이 하나가 되고 감동과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침서 "행복한 교회" 김병태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교회에서 치유받고 행복을 누리기를 희망하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위신이 추락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희망이 실현되는 곳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직 '섬김'과 '순종'을 실천할 때에만 공동체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모든 교인과 목회자가 행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덕스러운 말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행복의 교회로 쇄신하기 위해 필요한 아홉 가지의 지침을 다양한 일화 속에 녹여내어 실천적 자세를 함양하도록 이끌어준다.	2012년3월 19일-25일	독후감 느낀점 결단 적용 A4 2장

3)시행결과

두 권의 책을 읽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 후, 세족식을 거행하고 느낀 점에 대하여 발표했다. 모든 연구반원들이 여자성도들이었기에 남편의 발을 씻긴 느낌을 발표했다. 하나같이 남편의 말을 처음 씻겨봤는데 눈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남편의 발을 종종 씻겨주고 남편에 대해 항상 감사한다고 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훈련생들에게만 과제로 해오라고 했던 세족식을 이번 기회로 본 연구자도 시행해 보았다. 아내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알게 되었고 여성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한다는 것을 이론상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목회하기를 다짐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

3. 설교

최근 교계 내에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목회자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심지어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이 목회자 리더십의 부재로 꼽히고 있어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교단지인 한국성결신문사는 2월 1일부터 19일 동안 교단 목회자 및 평신도를 대상으로 총 38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성장둔화 및 정체현상으로 29.7%를 나타내었고, 두 번째로는 목회자 및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로 18.9%를 차지해 목회자에 대한 리더십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자훈련은 작은 목자를 세우는 작업이다. 목자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양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인도하는 리더이다. 때문에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워지는 작은 목자는 이러한 리더십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 또한 이러한 리더십개발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소경이 소경을 바른 곳으로 인도 할 수 있겠는가?

1)시행계획

교회의 생명은 예배이고 예배의 중심은 설교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서 어떻게 본 연구에서는 리더십개발을 위하여 먼저는 독서할 책을 두 권을 정해주고 일주일에 한 권씩 2주에 걸쳐서 읽어오도록 할 것이다. 한 주간의 독서가 끝나면 독후감을 A4 한장정도 요약하고, 느낀 점과 적용과 결단을 꼭 써 넣도록 했다. 그리고 일주 후에 주일 오후예배 후 2층 세미나실에서 만나서 리포트를 점검한 후 책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토론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를 중심으로 리더십 개발을 위하여 연구반 원들에게 본 교회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대화 및 비평을 하도록 할 것이다.

2)독서계획

표 18. 독서계획(설교)

도서명	내용소개	일정	레포트
속 빈 설교 꽉 찬 설교 (저자:정용섭)	이 책은 한국교회의 대표적 목회자들의 설교를 분석하고 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정적인 문제로 '성서 읽기의 아마추어리즘'을 짚어내면서, 그들의 지나친 열정이 설교 내용을 왜곡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그들의 설교 내용에는 신앙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요소가 교묘하게 들어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2012년4월 2일-8일**	독후감 느낀점 결단 적용 A4 2장
단순하게 설교하라 (저자:J.C라일)	설교자 라일이 45년간 설교해 오면서 체득한 설교의 지혜와 기술이 담긴 책으로, 단순한 설교의 위력을 보여준다. 라일은 설교에 있어 간과되어 온 중요한 주제가 '설교의 단순성'이라 역설하면서, 단순한 설교를 정의하고 단순한 설교를 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들을 내놓는다.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설교, 회중이 듣기 쉽고 오래 기억하는 설교를 하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간곡히 권면한다.	**2012년4월 16일-23일**	독후감 느낀점 결단 적용 A4 2장

3)시행결과

두 권의 책을 읽고 책의 전체적인 내용과 느낀 점과 결단과 적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 후, 독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 교회 목회자의 설교에 대하여 1 가지 이상씩 비평하도록 했다. 본 연구교회의 목회자에 대하여는 비평하지 못하고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비평했다. 한국교회 설교 문제점 중에서 1 위는 긴 설교, 2위는 성경중심에서 벗어난 설교, 3위는 너무 건조한 설교(딱딱한 설교)순으로

나왔다. 처음으로 교인들과 목회자의 설교에 대하여 토론한 것은 신선했다. 그 후 주일 낮 설교시 동영상촬영을 통해서 본 연구자의 설교 내용과 모습은 시정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Ⅵ. 결론

1. 요약

"새 술은 준비되었는데 새 부대가 없다." 현대교회 성도들은 "나는 단지 평신도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들 자신의 의미 있는 사역을 포기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이것은 현대교회가 경험하는 최고의 비극이다. 엄청난 저력을 가진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교회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평신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영감을 주고, 격려를 해서 그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창출하고, 그 비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가는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는 "주고 받는" 상부상조의 관계이다. 즉 목회자는 평신도에게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고, 평신도는 목회자의 인도에 기꺼이 따라 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사역에 참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목사급 평신도를 만드는데 초점이 있다. 여기서 목사급 평신도란, 사역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신도 사역은 시대적 조류일 뿐 아니라 성경적 원리라는 점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일반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평신도를 목회의 최전방에 내세우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지적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평신도 사역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평신도들은 단순히 방관자나 사역의 수혜자로 있을 때와는 달리 '자기 교회'라는 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평신도를 엑스트라로 남게 하지 말고, 그들이 각 분야에서 주인공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과 배려를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지금 처럼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의 정체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신도 사역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을 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예수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세워진 교회를 기초로 복음을 전파하게(좁게는 전도, 넓게는 선교) 만드는 과정이다. 훈련이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결단과 각오로 시작하지만 훈련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많은 훈련생들이 가정과 직장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마치는 훈련생이 있다는 것이다. 훈련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여러 번 중단할까 생각도 했지만, 훈련을 마치고 든든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소수의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 교회의 성장은 소수의 훈련된 사역자들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이 남는다 하더라도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본 연구자는 결론을 내린다.

2. 제언

첫째, 교역자 중심체재에서 평신도 중심체재로 바꿀 수 있다. 겉으로는 교역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안으로는 은근히 그들을 나누어 놓는 풍토에 젖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역자의 권위주의와 독점욕은 평신도가 제사장으로 설 땅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로서 그 본연의 위치를 찾아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역자가 그들을 섬기는 교회라면 그것이 평신

도중심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역자가 먼저 좀 더 낮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공간적인 상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자기 본연의 위치를 찾으면 교역자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수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신도 훈련은 모든 교역자가 평신도를 위해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아비가 자녀를 훈계하고 권면 하듯이 교육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전 교회가 상호 사역하는 유기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평신도끼리 서로 상호사역을 중요하게 다루는 제자훈련이 어느 단계에 오르게 되면 영적 생명을 공유하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형태의 유기적 모임들이 크게 발달하여 나타나게 된다. 교인이 자기를 독립된 개체로 보지 않고 다른 지체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하면 현대 교회 안에서 메마른 조직체로 인해 유발되고 있는 갖가지 병폐들을 상당히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평신도 훈련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지체로서 상호 사역할 수 있는 기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교화안과 밖에서 이 상호사역이 결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 결과 성도 상호간의 횡적인 관계는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영적 교제를 통해 발전하게 될 것이다(골3:16, 요일1:3-4)

셋째, 분담 사역의 잠재력을 가진 평신도지도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고통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아니면 교회 안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고독감이다. 그래서 그는 허덕이다가 언젠가는 병적인 피로감으로 만사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는다.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목회 하려는 안일주의의 희생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평신도 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지도자를 계속 계발하면 이런 고독감이나 피로감을 덜 수 있다.

넷째,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이룰 수 있다. 평신도제자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가 늘어나고 그 지도자를 통해 나머지 교인들이 계속적인 양육을 받으면 거기서 생산되는 힘은 교회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는 평신도의 일주일 동안 활동하는 전 생활권이 선교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누는 모든 대화는 복음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구실을 한다. 그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려는 직접 간접의 기회로 활용된다. 여기서 교회의 지속적인 전도와 부흥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Ⅶ. 참고문헌(Bibliography)

1. 동양서적

김기홍. *성경과 신학 3권.* 서울: 엠마오, 1986.

김동춘. *근대의 그늘.* 서울: 당대, 2000.

김득중. *복음서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86.

류형기 편저. *바리새인.* 성서사전.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85.

박충구. *한국사회와 기독교윤리.* 서울: 성서연구사, 1995.

신원하. *기독교 윤리와 사회 정의.* 서울: 한들출판사, 200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2009.

______.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______.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5.

______.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______. *평신도를 깨운다: 지역교회를 위한 제자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두란노서원, 1984.

이근미. *큰 교회 큰 목사이야기.* 서울: 월간조선사, 2005.

이상근. *신약주해-마가복음.* 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84.

이상근. *신약주해-요한복음.* 서울: 예장총회교육부, 1968.

이원규. *한국 사회 문제와 교회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이중표 외 공저. *영적부흥과 갱신의 길.*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9.

최선화.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양서원, 1999.

한철하. *성경과 신학 2권.* 서울: 엠마오, 1984.

______. *성경과 신학 4권.* 서울: 엠마오, 1986.

2. 번역서적

Bornkamm Günter. *나사렛예수.* 강한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Bruce A. B. *열두 제자 훈련.* 김영봉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4.

Calvin John. *기독교 강요 제3권.* 김종흡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88.

Chandabila P. *예수님의 제자훈련.* 신재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86.

Forsyth Peter Taylor. *기도의 정신.* 한길모 역. 서울: 태광문화사, 1977.

Foster Richard. *영적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서울: 보이스사, 1982.

Hornl H.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 박영호 역.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82.

Khune G. W.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0.

Kuhne Gary W.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8.

Kung Hans. *교회.* 정지련. 서울: 한들출판사, 2007.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이해.* 전재옥 이요한 김종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Moore Waylon B. *제자 배가의 원리.* 서울: 한국네비게이토선교회, 1982.

Rawls John. *공정으로서의 정의.* 서울: 서광사, 1991.

Schudart Christian A. *자연적 교회성장.* 도서출판 NCD, 2009.

Watson D. *제자도.* 문종학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7.

3. 외국서적

Allen Hadidian. *Successful Discipling.* Chicago: Moody Press, 1979.

Ann Mckinney. *The Sunday School Teacher at His Best.*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15.

Edward W. Robinson. *The New Brown Driver and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on of Old Testament.* Indiana: Book Pub, 1981.

E, M. Bounds. *The Weapon of Prayer.* baker Book House, 1925.

E. Schell. *The Training of the Twelve.* Cincinnati: Jennings and Graham, 1911.

F. A. Norwood. *Church Membership in the Methodist Tradition.* Nashville: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58.

Gerhard Ke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erdmans: 1797.

Gerhard Kittel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I*,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5. Pub, 1968.

J. Gregory. *The Seven Laws of Teaching.* Boston: The Pilgrim Press, 1886.

L. J.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 1944.

R. Coleman., *The Master Plan for Evengelism.* Old Tappan: Fleming H. Revill Co, 1976.

S. Gordon. *Quite Talks on Home Ideal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9.

Vergil Gerbered. *Discipling through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Chicago: Moody Press, 1980.

Virginaia S. Thechered. *The New Webster Encyclopedic Dictionary.* Chicago: Consolidated Book Publishers, 1967.

Waylon B. Moore. *Multiplying Discipling.* Springfield: NAV Press, 1981.

4. 논문

기독교신문. *한국교회의 虛와實 - '오늘'을 진단한다.* 한국교회 교육의 문제점, 2009.

원종국. *제자양성의 성서적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과 풀러신학교 공동학위과정, 1987.

5. 정기간행물

김상섭. *2012년 요람*. 열린교회, 2012.

김진용. “가난한 자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실천적 과제에 대한 고찰”. *기독교사상*. 제 507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하용조. “기도는 목회의 생명선입니다.”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 1990.

6. 참고사이트

남원시청, http://www.namwon.go.kr

다음블로그, http//blog.daum.net.

1. 제자훈련반 지원서

제 기 제자 훈련반 지원서

*코스선택 N코스: 레포트×, S코스: 레포트○ 작성일: 년 월 일

이 름		성 별	남 , 여	생 년 월 일	년 월 일(음,양)	
연 락 처	핸드폰: 전화(집): 직장:					
주 소	(우편번호:)					
신앙경력	년(내용:)				이 전 교 회	
구 역		구 역 장 이 름			구역출석기간	년 개월
세례받은 연도와 교회, 목사		년 월 일, 교 회: 목 사:				
열린교회 등록일자		년 월 일, 등록사항: 스스로, 인도자:				
새가족모임 수료일자		년 월 일		성장반 수료일자		년 월 일
교회직분(이전직분도포함)						
교회훈련상황(이전교회포함)						
교회봉사상황(이전교회포함)						
직장, 직업(구체적으로)		회사명: 직위:				
가 족 사 항						
관 계	이 름	생 년 월 일	신급(학습,세례)	교 회 직 분	학 력(과)	교회출석여부
본 인						

*지원동기(구체적으로)

*지원자날인:__________(인), *배우자날인:__________(인), *구역장날인:__________(인)

2. 제자훈련반 모집안내

제자 훈련반 모집 안내 "열린교회"

교회의 각 영역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①본 교회 등록자, 세례 받은 자
   ②새가족 모임을 마친자(5주), 성장반 훈련을 마친 자(15주)
   ③만30세-55세까지
   ④훈련 중 교회 봉사 요청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봉사는 필수사항)
   ⑤배우자의 허락을 받은 자
   ⑥신체건강하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자
   ⑦제자훈련의 모든 내용을 불평 없이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된 자
   ⑧타 교회에서 새가족모임, 성장반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훈련부로 문의바랍니다.

2. 지원방법
   ①접수처 : 강옥경집사, 김은영집사
   ②제자훈련 지원서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 후(서명날인) 접수(주의: 지원서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함)
   ③문의: 훈련부(강옥경집사: 010-5665-3287
   김은영집사: 010-2358-9116)

3. 훈련기간
   ①32주 과정
   ②훈련시간: 주 중 1회(2시간 전후)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분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개별통보 합니다.